청년생활



1
1962



직물 三억 五천만 메터 고지 점령에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청년생활

차 례

1
(149)
1962



견결한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여섯 개 고지 우에 승리의 붉은 기를 휘날리자!

전체 인민과 청년들이 김 일성 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기세 충천하여 1962년도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개시하였다.

근위 기'발을 휘날리며 《10만 톤 군》 창조 운동에 나선 열두 '삼천리'벌의 조합 청년들도, 붉은 마음을 실오리마다 담으며 필펄히 비단천을 짜내는 평방의 처녀들도, 창파를 가르고 해양국 청춘의 억센 기상을 떨치며 대해로 나아가는 신포의 어로공들도, 영웅 수도의 젊은 건설자들도, 붉은 쇠'물을 폭포로 쏟으며 오늘의 《1,211고지》에 선 황철의 강철 영웅들도, 《검은 금》을 갱도가 메이게 실어내는 삼신 탄광 젊은 탄부들도 새해 첫 전투부터 기적과 혁신을 일으키고 승리의 개가를 올린다.

하나의 보루를 점령함으로써 전 전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명확한 공격 목표의 설정, 이것은 전투 승리의 확고한 기초이다.

공격 목표가 명백하니 모든 힘은 하나의 곬으로 뭉쳐져 무적의 위력이 소용돌이친다.

전투 수행 방도가 뚜렷하니 우리의 앞길은 환해졌으며 장수가 보검을 얻은 듯 돌파 못할 그 어떤 화선도 ·점령 못할 어떤 고지도 없다.

여섯 개 고지의 점령! 이는 벌써 확고 부동한 것으로 되였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점령할 여섯 개 봉우리 우에 올라서 우리의 래일을 전망해 보자!

황금 전야에는 오곡이 무겁게 만풍년을 노래하고 오색 령롱한 비단천들은 이나라 사람들의 의복 단장을 더욱 호화롭게 할 것이다. 밥상에 올라 입맛을 돋구는 물 고기며 처마를 잇고 우후죽순 같이 일어 선 아빠트들과 언덕을 끼고 줄줄이 늘어선 농촌 문화 주택들은 또한 얼마나 좋은가!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면 7 개년 계획 수행은 더욱 촉진 될 것이며 전대미문의 테로와 류혈, 기아의 생지옥 속에서 허덕이는 남녘 땅 형제들은 우리의 새로운 승리에 고무되여 더욱 항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킬 것이다.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2 차 전원 회의 확대 회의는 금년도 전투에서 우리들이 점령해야할 위대한 공격 목표를 명시하여 주었다.

김 일성 동지는 대안에서, 숙천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성숙된 문제를 완전히 풀어 주시고 새 전투 승리를 위한 뚜렷한 실천 방도까지 명시해 주시였다.

이제 남은 문제는 오직 당의 의도로 튼튼히 무장하며 견결한 혁명 정신을 가지고 이악하게 당 정책을 관철 하는데 있다.

여섯 개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해야 한다.

전투의 승패는 병사들의 전투 정신 여하에 달렸다. 지난날의 성과에 조금도 자만 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적과 상치된 조건에서 혁명을 하고 있다. 원쑤들은 우리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더욱 발악한다.

우리 어찌 자만하고 해이할 수 있으랴! 혁명의 시대는 혁명적 기풍과 혁명적 정신을 요구한다. 피로써 이룩한 사회주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며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살며 배우는 공산주의적 기풍을 모든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안일하고 부화한 현상들을 결정적으로 반대하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추호의 동요 없이 당의 의도를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5 개년을 2 년반에 뛰여 넘은 그 속도, 그 기세로 계속 혁신, 계속 전진 하여야 하며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담당 공격하는 선진 돌격대가 되여야 한다.

자력 갱생의 정신—이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기풍이며 혁명 정신이다.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의 힘을 빌어서 혁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어떤 곤난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자기 앞에 부과된 혁명 과업은 이악하게 자신의 힘으로 완수하는 여기에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풍모와 비상한 정신력이 있다. 바로 조국이 처한 운명과 혁명 정세가 그것을 절박하게 요구 하였을 때 1930년 대의 항일 빨찌산들은 《무》로부터 《연길 폭탄》과 같이 위력한 무기를 만드는 기적도 창조 하였고 15 여 성상의 기나긴 세월 목숨으로 조국 광복의 길을 개척하였다.

종파 나부랭이들과 동요 분자들이 해내지 못하리라든 5 개년 계획도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을 그의 수행에로 확고하게 조직 동원함으로써 불과 2 년반 후에 그 승리의 상상봉에 붉은 기를 휘날렸다.

결국 제 살림은 제가 꾸려야 한다. 자기 나라의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이 없이는 로동 계급의 국제적 임무에도 충실할 수 없다. 우리는 교조주의, 수정주의의 사소한 표현도 용허하지 말고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을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우리 당 정책을 확고히 믿고 그의 관철에 모든 정력, 모든 재능을 바쳐야 한다. 우리는 자기의 손, 자기의 힘으로 더 많이 더 잘 건설하기 위하여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없는 것은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만들어 내며 더 많이 증산하고 더 많이 절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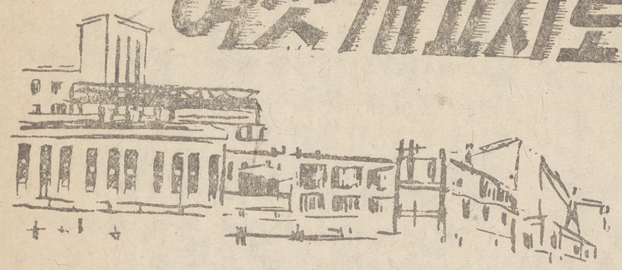
청년들은 견결한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여섯 개 고지의 전 전선에 걸쳐 기술 혁신의 초병이 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다. 무기 없이는 전투도 못하는 법, 따라서 기술 혁신 없이는 결코 여섯 개 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 수 없다.

하물며 지금은 기술 혁명의 시대다. 현대적 과학 기술로 무장함이 없이는 인민 경제를 일보도 전진 시킬 수 없다. 누가 나라를 문명하고 발전된 사회주의 공업 국가로 발전 시키는 주인이 되겠는가? 바로 우리들 젊은 세대들이다.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자! 값 높은 청춘 시절에 어찌 세월을 헛되히 보내겠는가! 우리는 응당 배움에서도 견결한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도처에서 창안하며 도처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 들어야 한다.

이리하여 우리는 금년도에 자기 앞에 부과된 일별, 월별, 분기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휘황 찬란한 승리의 기'발을 여섯 개 봉우리의 절정우에 높이 휘날리자! 우리에게는 간고한 혁명 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당과 수령의 정확한 령도가 있으며 당 주위에 철석같이 단결 된 우리 인민의 무궁 무진한 힘이 있다. 견결한 혁명 정신을 발휘하여 전진할 때 그 어떤 요새인들 점령 못하겠는가! 모두다 당과 수령의 주위에 굳게 뭉쳐 이해의 나날을 빛나는 로력과 투쟁으로 엮고 점령된 여섯 개 고지의 상상봉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자!

여섯 개 고지로 달리는 마음



언제나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직장의 김 윤숙 동무가 휴가를 끝마치고 돌아온 다음날 우리 연구소에 낯모를 한 청년이 찾아 왔다.

《함흥 17 건설 트레스트에서 왔습니다. 이 연구소에 김 윤숙이라는 민청원이 있지요?》

《네.》

《이건 그 동무에게 드릴 상품입니다. 여기에 감사장도 있구요.》

그는 커다란 꾸러미를 내놓으며 말했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 하였다. 그는 나의 이런 기색을 알아 채렸는지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윤숙 동무는 참으로 훌륭한 민청원입니다. 우리 건설장의 민청원들은 모두 그의 붉은 지성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인 즉 이러하지요.》

× ×

약 반달 전 어느날 스무살을 갓 넘었을 한 처녀가 가성 소다 공장 건설장에 나타났다. 그는 건설장의 간부들에게 조르기 시작하였다.

《저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하려고 찾아 왔어요.》

《연구소 일은 어떻게하고 여기서 일하려고 하오?》

하고 어안이 벙벙한 간부는 이렇게 되물었다.

《저는 지금 휴가 기간예요.》

《아 그렇소. 그럼 휴가를 해야지.》

《저는 이번 4 차 당 대회 문헌을 학습하면서 정말 흥분하였습니다. 당은 여섯 개 고지 점령에 대한 전투적 과업을 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가성 소다 공장 건설은 2억 5천만 메터 직물 고지 점령의 중요 고리거던요. 저의 마음은 지금 여섯 개 고지로 달리고 있어요.》

《허 참 고집두…》

건설장 간부들은 계속 난처한 기색을 띠우면서도 하는 수 없이 그의 부드러운 손'길을 보고 그를 쉬운 부문에 배치하려 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저는 민청원이예요, 수상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고 말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배치해 달라는 것이였다.

그래서 그는 건설장에서도 가장 힘들다는 벽돌 운반조에 속해서 일하게 되였다. 이 처녀가 바로 윤숙 동무였던 것이다.

윤숙 동무는 첫날 작업에서 벌써 180 %의 능률을 내였고 건설장 동무들로부터 《번개 처녀》라는 별명까지 들었다. 저녁에 돌아 올 때면 두 다리가 휘천거렸으나 그는 모든 피곤을 참아내였다. (땀을 많이 흘려야지.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릴 수록 이 공장은 빨리 일어설 것이고 우리들의 생활도 그만큼 더 빨리 향상될게 아닌가?)

윤숙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어떤 때에는 낮'일을 끝마치고 다시 밤교대에 나와서 일하는 때도 있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말릴라치면 그는 생글생글 웃으며 말했다.

《아주머니두 원, 힘을 젊어서 안쓰고 언제 쓰겠어요.》

며칠 후 건설장에서는 벽돌 축조 작업이 딸리게 되였다. 그러자 윤숙이는 벽돌 운반 작업에서 이번엔 축조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처음에는 좀 서툴기도 했으나 그가 어찌도 일을 이악하게 배웠던지 불과 수일내로 벽돌 축조에서도 한다하는 기능공들을 따라 잡았고 150 %의 능률을 올렸다.

그는 이곳 건설장에 온후 비단 생산에서만 모범을 보인 것은 아니였다.

그의 품에는 언제나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책이 간직되여 있었으며 쉴짬마다 그는 그 책을 건설자들에게 재미있게 읽어 주었다. 4 차 당 대회 문헌을 비롯한 당 정책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기도 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에서, 그가 일하는 모든 곳마다에서는 은방울 같은 그의 목 소리가 랑랑하게 울려 퍼지군 하였다.

건설장에는 김 동무라는 좀 뒤 떨어진 동무가 있었다. 그는 스물 다섯 한창 나이의 청년인데 결근을 자주하고 일에 성실하지 못했다. 윤숙이는 로동에 대한 그의 그릇된 태도를 고쳐 주어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그와 함께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이야기 하였다. 즉 그는 가성 소다가 섬유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원료라는 것, 따라서 이 공장 건설은 여섯개 고지 점령의 중요한 고리로 된다는 점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타일러 주었다.

그러나 김 동무에게는 하등의 뉘우침도 주지 못했다. 그는 윤숙이를 아래우로 훑어 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제일이나 어서 하구려!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구!》

그러더니 그 다음날엔 아예 일터에 나타나지도 않고 또 결근하였다.

윤숙이는 손맥이 탁 풀렸다. 그러나 윤숙이는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내가 물러 설 수는 없다. 자기의 동지가 그릇된 길로 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우리 민청원들은 그 어디에 가든지 자기의 의무에 충실해야 하며 그 곳에서 혁신을 이르켜야 한다. 그렇다! 아직도 휴가 기간이 남아 있으니 그 재



여기에 1,211 고지의 영웅이 있다

여섯 개 고지의 점령을 위하여 50만 톤의 강철 생산에 떨쳐 일어선 우리 제철소의 첫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장은 이렇게 웨치고 있습니다.

《1,211 고지 영웅들처럼 싸우자!》

지금 우리 청년들 속에서는 가지가지의 미담들이 꽃펴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강 직장에서 대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지요. 아직도 채 식지 않은 로안을 한참동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민청원 민 양기 동무는 갑자기 무슨 결심을 내린 듯 작업반장에게로 달려 갔습니다.

《반장 동지 로안의 강괴를 까냅시다.》

《안되네.》

반장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아직도 불아구리 같이 이글거리는 로 속에 사람이 들어 가서 일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거던요.

그러나 보수 기일을 단축함으로써 당이 가르키는 여섯 개 고지 점령에 더 보람있게 이바지 하려는 민청원의 투지는 굽어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여 작업 반장도 그의 불타는 열의에 탄복하여 직공장과 안전원을 데리려 갑디다.

어느 새인지 민 양기 동무는 오 경빈, 로 관수, 리 봉수 동무들과 함께 물이 줄줄 흐르는 가마니를 몸에 둘으고 로 앞에서 만단의 전투 태세를 가추고 있었습니다.

돌격을 앞둔 전사들처럼 이글거리는 그들의 눈 동자를 쳐다보는 직공장과 안전원도 차마 그들의 열의를 막지못했습니다.

원쑤의 불아구리를 청춘의 가슴으로 막은 리 수복 영웅의 심장이 그들의 가슴마다에 높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숨에 로안으로 뛰여들어 빠루로 맞붙은 강괴를 하나씩 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젖은 가마니에서는 확확 단김이 풍겨 숨이 막히고 발'바닥은 참을 수 없게 달아 오르고 땀은 비오듯 하였습니다.

허나 그들은 누구하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극도로 긴장되여 주먹에 땀을 쥐고 로안을 주시하는 수 많은 사람은 마치 1초 1초가 하루처럼 지루하게 생각되였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강괴 량머리에 와이야 로쁘를 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로 밖으로 나오는 그들이 몸에 두르고 있는 가마니는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군데군데 시커멓게 타 있었습니다.

기중기 신호종이 울리고 와이야 로쁘가 팽팽히 조여 들더니 강괴는 무거운 소리를 내며 로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것을 쳐다 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여섯 개 고지 점령의 선두에 선 1,211 고지의 강철의 용사답게 일한 보람과 영예가 차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과연 무엇인들 못해내겠습니까? 우리는 기어코 120만 톤의 강철 고지 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야 말 것입니다.

황해 제철소 조강 직장
통신원 리 순옥



이 처녀을 반드시 고쳐주자.》

윤숙이는 나음날부터 더욱 살뜰하게 그 청년을 대했다.

윤숙이는 직장 간부들과 민청 위원장을 찾아가 조언을 받기도 하였고 작업반 동무들과 짜고 들기도 하였다. 그런 결과 어떻게나 주위 사람들이 지어는 작업반의 아주머니들까지도 자기를 따뜻이 보살펴 주고 대해 주었던지 김 동무는 정말 어리 둥절할 지경이였다.

윤숙이는 이렇게 그와 일단 친한 사이가 된 후 그 어떤 짬을 리용해서든지 그에게 회상기책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였다. 퇴근하면서도, 쉴짬에도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회상기책 내용으로 슬쩍 넘어가군 하였다.

《… 김 동무! 1930년 대의 항일 빨찌산들은 벌써 우리 나이 때에 혁명을 위해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웠고 능숙하게 군중들을 혁명 승리에로 조직 동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난 스무살을 먹으면서 나라를 위해 얼마나 일했느냐고 생각할 때 어쩐지 부끄럽군요.》

《……》

《참말이지 먼 후'날 우리의 후대들이 동무는 우리 나라의 벅찬 사회주의 건설 시기에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으면 버젓이 대답할 것 같지도 않구, 천리마로 달리는 현실에서 뒤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구 그래서 이러저러 밤'잠이 안 올 때도 많아요.》

윤숙이가 이런 말을 할때면 김 동무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이렇게 꾸준하고 절절한 설복은 김 동무의 마음 속에 도사렸던 낡은 생각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였다. 더우기 김 동무를 깊이 탄복시킨 것은 로동에 대한 이 처녀의 훌륭한 모범이였는데 어느날 밤 낮'일을 끝마친 윤숙이가 계속 밤 작업에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을 깊이 뉘우쳤던 것이다.

다음날 김 동무는 민청 위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릇된 로동 태도를 비판했고 고칠 것을 결심하였다. 윤숙 동무의 절절한 동지애와 숭고한 혁명 정신은 김 동무의 심장에도 거센 불'길을 달아 놓았던 것이다.

바로 이렇게 나어린 한 민청원은 자기의 휴가 기간을 보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로서 끝났다. 나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윤숙 동무를 불렀다. 이윽고 방에 뛰여 들어 온 윤숙 동무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아유! 건설장 민청 위원장 동무!》

그러면서 어리광 부리듯 달려가 그 청년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였다.

나는 윤숙 동무의 구리'빛 얼굴을 찬찬히 쳐다 보았다. 아무리 어려운 분석 과제를 맡겨도 서슴 없이 접수하는 그, 짬만 있으면 분석 조작을 련습하고 한번도 자기의 분석 과제를 어긴 일이 없는 그, 낮에는 힘에 겨운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전문 학교에 다니면서 꾸준히 배우는 처녀! 과연 그는 얼마나 훌륭한 민청원인가!

나의 가슴은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였다.

유리창'가에 놓인 화분에는 겨울 철의 해'볕을 담북 받으면서 한떨기 붉은 꽃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 꽃마저도 고개를 숙인 듯이 나에게는 생각 되였다. 우리 시대에 피여 난 또 한떨기의 아름다운 붉은 꽃송이 앞에 무색한 듯이……

과학원 함흥 분원 화학 공업 연구소

민청 위원장 윤 복영



그날 계획을 그날로!

지난해 12월에 수상님께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고 금년 정초에는 또 다시 우리 공장 초급 당 위원회 확대 회의를 지도하셨습니다. 직물 고지 점령을 위한 명확한 방도를 가르쳐 주신 그이의 말씀은 나의 심장에 뜨거운 불을 지펴 주었습니다.

우리 공장에는 금년도 직물 2억 5천만 메터 고지 점령을 위하여 작년보다 118.5 %로 장성된 생산 계획을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습니다.

나는 이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새해에 들어서면서 3일에는 450 메터, 6일에는 465 메터, 9일에는 734 메터로 생산을 장성시켰습니다.

이것은 수상 동지가 말씀하신대로 생산 준비를 철저히 가추었을 뿐만 아니라 전투 목표를 정확히 세우고 그날 계획을 그날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전개한 데서 얻은 성과였지요.

나는 이 경험을 앞으로도 계속 살리겠어요. 무엇보다도 설비 리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작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날 계획을 기어코 그날로 완수하면서 금년 나의 년간 계획을 8.15 해방 17주년 기념일까지 완수하고야 말겠습니다.

평양 방직 공장

직포공 신 정숙

승부없는 부부경쟁

이 일은 우리 조합에서 있은 일입니다.

아침 일찍이 자급 비료 생산 현장에 나온 민청원들은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랐답니다.

거기에는 어제 결혼식을 한 서 이선 부부가 벌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였지요.

민청 위원장 유 용기 동무는 그들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왜 벌써 나왔소.》

서 이선 동무는 머리를 긁으며 어색한듯 서 있더니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부부 경쟁을 체결하였답니다.》

그러니 민청 위원장도, 민청원들도 그들을 집으로 돌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자 그들은 걸사게 일하였습니다.

하루 해가 저물었습니다. 하루의 작업을 총화 지으며 민청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민청원들의 평균 성적은 3 톤 500 키로 입니다. 매개 동무들의 실적을 말한다면…》

옆에 앉아 있던 한 민청원이 더 참지 못하고

《서 이선 동무네 부부 경쟁이 어떻게 되였는지 먼저 이야기해 주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민청 위원장은 빙그레 웃고 나서

《서 이선 동무는 5 톤 200, 그의 부인도 5 톤 200— 승부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 하자 민청원들은 환성을 올리며 서 이선 부부를 둘러 싸고 축하하였습니다.

두 부부는 빙그레 웃으며 정답게 마주보는 것이였습니다.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일떠선 우리 조합 민청원들 속에서는 날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꽃펴나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재령군

천리마 농업

협동 조합

통신원 최 병학

승리의 기'발 휘날리리라!

하늘'가엔 붉게 붉게
새벽 노을 타 끓는데—
층층이 쌓아올린 5층 꼭대기에서
잠시 허리펴고 이마에 땀 씻노라면
가슴 호뭇이 안겨 옵니다.
수천 수만의 화려한 방들이…

안겨 옵니다.
해'빛 밝은 방안에 가득차 넘치는
한 가정의 행복에 찬 웃음 소리가,
창문 밖을 내다 보는
귀여운 아이들의 웃음어린 얼굴들이
그림처럼 훤히 안겨 옵니다.

하늘높이 솟은 천리마 동상 바라보며
이 아침 여기에 또 하나—
5층 주택 높이 새로 세우거니
아, 어머니 당이여!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우에
승리의 붉은 기'발 휘날릴
영예로운 그날도 지척에 보입니다.

미끼샤는 무쇠 달팽이 처럼
땅우에 앉아서 와룽 거리고
하늘 높이 일떠선 기중기는
두둥실 큰 벽체 련신 물어 올리는데
조립공들 재빠른 솜씨로
용접의 불꽃 창공에 날리거니—

조국의 백년 대계 꾸며 가는
건설자의 영예 드높이
한 삽의 세멘트
한 토막의 목재도 아껴쓰고,
무쇠 같은 팔뚝엔 새힘 절로 솟아
기술 혁신의 앞장에 서서
살기 좋고, 값 싼 집
더 많이 지으리니

아, 어머니 당이여!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우에
우리는 휘날리리라
승리의 붉은기'발 휘날리리라!

평양시 보통강 구역 신원동

리 재린

민청 창립 16 주년을 맞으며

나의 공청 생활

김 성 국



청년 동지들!

오늘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은' 자기의 창립 16 주년을 맞는다. 당과 김 일성 원수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이 걸어 온 길—그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전투적 행로이다.

이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나에게는 1930년대의 공청 생활이 회상된다.

내가 공청 생활을 하던 그때로부터 어느덧 20 여 년이란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김 일성 원수의 슬하에서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던 그 보람찬 나날들에 대하여 잊을 수 없다.

내가 유격대에 입대한 것은 16 세 때였다. 나는 당시 김 일성 원수께서 사장으로 계신 조선 인민 혁명군 제 6 사에 복무하게 되였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청년 운동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고 청년들을 교양 육성하는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두시였다. 그이께서는 평상시에는 물론 고된 행군의 휴식 시간에도 자주 우등'불 가에 오시여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한 말씀을 들려 주시군 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의 가슴 속에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게 하였다.

머슴'군의 아들로 태여나 일찌기 어머니 마저 여이고 어려서부터 지주'놈의 머슴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나는 부대내에서 처음으로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행군시에도 휴식 시간에도, 심지어 자는 시간도 아껴가면서 공부를 하였다.

물론 나뿐만이 아니라 유격대내 공청원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간고한 행군시에도 학습하였으며 전투의 휴식 시간에도 학습하였다.

유격대에서는 아는 사람은 가르쳐 줄 의무가 있으며 모르는 사람은 배울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공청 조직에서는 나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서도 꾸준하고 세심하게 방조해 주었다.

유격대에서 1 년 남짓한 어간에 나는 동지들의 방조를 받으며 문맹을 퇴치하고 쉬운 정치 서적을 읽을 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하여 나는 영예로운 공청원의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공청 생활을 하는 전 기간을 통하여 나는 더욱 성장되고 훈련되였다.

김 일성 원수께서는 공청 사업은 당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공청 생활을 하는 기간은 후보 당원의 생활 기간과 같다고 하시면서 당에 입당하려면 우선 공청의 위임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나는 원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 깊이 명심하였다.

유격대내에서 공청 사업은 언제나 구체적이였으며 세심하였다. 매개 공청원들의 생활 처지를 세심하게 파악한 토대 우에서 분공을 주었다. 수준이 어리거나 우리와 같이 입대한지 얼마 안되는 공청원에 대해서는 공청 일'군들과 공산당원들이 몇 명씩 분공 맡아 가지고 개별 지도를 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공청원들이 조직에서 맡은 분공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초기 나에게 제일 많이 분공된 것은 무기에 하루속히 익숙하며 뒤떨어진 학습을 추켜 세우는 문제였다.

나는 공청에서 주는 분공을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꼭꼭 실행하군 했다. 조직에서는 그의 수준과 능력, 체질에 알맞게 분공을 주고는 제때제때에 실행 결과에 대하여 평가해 주었으며 동지적인 방조를 주어 자기 힘으로 맡은 임무를 완수케 했다.

이리하여 우리들은—나는 공청원이다. 나는 공산당의 영광스러운 전투적 후비대인 공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공청원으로서의 자각과 긍지를 항상 간직하고 생활하였다.

이때 공청 단체들은 간고한 투쟁의 나날에도 군중 문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우리는 그때 전투의 여가에 노래를 짓고 작곡을 하였으며 희곡도 쓰고 배우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 생활에는 언제나 생기 발랄한 활기가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는 조직에서 주는 혁명 과업을 성실히 집행하면서 공산당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꾸준히 준비하였다.

공산당원으로 되는 것—이것은 공청원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희망이며 더 없는 영예이다. 성장하면 할수록 당원이 되고 싶은 의욕은 더욱 강렬하게 일어 났다! 나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내가 당에 입당하기 위하여 투쟁 속에서 자신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김 일성 원수께서는 나의 입당 준비를 위하여 매일과 같이 개별 지도를 하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자신이 특별히 바쁘실때에는 우수한 당원들에게 위임하면서까지 나의 입당 준비를 방조하게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였다.

…당원의 영예를 지니기 위하여 분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을 든든히 가져야 한다. 당원이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까지도 다 바쳐 싸울 것을 결의하고 당에 들어 온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당원은 당과 인민을 위하여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만난을 극복하며 투쟁하는 혁명 투사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군중의 앞장에 서서 군중을 이끌고 나가는 선진 투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의 영예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물건 나누어 주듯 주는 것이 아니며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계급적 립장을 철저히 고수할 줄 아는 그런 일'군으로, 인민 대중을 혁명의 승리에로 조직 동원할 줄 아는 그런 일'군으로 되기 위하여 투쟁 속에서 자신을 단련하고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될 때만이 당원이 될 수 있다. 성국 동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나는 그이의 가르침을 심장에 아로새기고 전투와 행군의 길에서 언제나 모범이 되기 위하여 힘썼다. 그러나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그들의 높은 혁명 정신을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투쟁이였다. 그러나 나는 이 투쟁에서 일보도 물러서지 않았다.

세상에 《고난의 행군》으로 널리 알려진 1938년 말 몽강으로 부터 장백에로의 100일 행군은 간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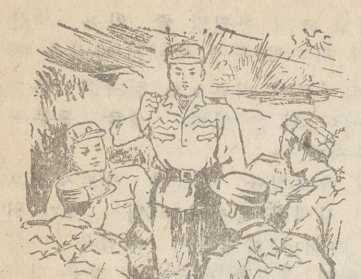
하루에도 십 여 차례씩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과의 가렬한 전투, 모진 추위와 주림, 눈속에서 자고 눈을 먹으면서 허기증을 참아가는 행군의 시련 속에서도 당원들은 항상 부대의 전투 승리를 위하여 앞장에 섰다. 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우리들도 굴하지 않았다. 지칠대로 지친 몸이였으나 나는 무서운 고비를 끝까지 이겨냈으며 악착하게 덤벼드는 원쑤들을 무자비하게 치고 또 쳤다.

사실 우리가 걸어 온 길은 험난하고 간고했다. 그러나 수많은 전투들을 비롯하여 중중첩첩한 곤난을 돌파하는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나는 더욱 단련되여 갔다.

당의 아들로 육성되고 단련되여 가는 과정에 김 일성 원수의 따뜻한 손'길은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와 동지들의 방조에 의하여 그리고 원쑤를 무찌르며 혁명적 리론으로 자신을 무장하며 힘차게 혁명의 험준한 한길로 내달린 결과 1941년 5월에 당에 입당하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나는 공청 생활에 대한 회상을 끝마치면서 동무들에게 간곡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동무들은 무엇보다도 민청 조직이 주는 위임에 충직하여야 하며 학습에서 모범을 보이고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땅에서 원쑤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의 혁명 위업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우리는 혁명 시기에 살고 있다. 사소한 안일과 자만도 있을 수 없다. 모두다 더욱 더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면서 금년도 6 개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떨치자

이것이 민청 창립 16 주년을 맞으면서 내가 동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전호 속의 민청 분조 회의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 대해서 회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1951년 가을 1,211 고지 좌측 무명 고지 릉선에서 용감하게 원쑤들을 무찌르던 민청원 오 순선 동무를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그는 분대장이였다.

당시 적들은 이 무명 고지 릉선을 점령한 후 1,211 고지를 탈취하려고 망상하였다. 미제 승냥이들은 이 무명 고지에 하루에도 수천 발의 포탄과 폭탄을 퍼부었다. 고지 우의 아름드리 나무와 바위들은 산산이 조각이 났다.

그러나 놈들이 퍼붓는 포연 탄우 속에서 허물어진 전호와 사격호들을 보수해 가면서 전사들은 한 치의 땅도 내 주지 말라는 당과 수령의 명령대로 고지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순선 동무가 속한 소대에 새로운 전투 명령이 하달되였다.

《래일 밤 중으로 1,211 고지 동남쪽 무명 고지를 탈취할 것!》

전투 명령을 받은 소대에서는 출발을 앞두고 낮게 드리운 포연 자욱한 전호 속에서 민청 분조 회의를 열었다.

전사들은 저마다 원쑤들을 한 놈도 남김 없이 소멸할 불 같은 맹세를 다졌다. 오 순선 분대장이 제일 먼저 토론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영예로운 전투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심장 속에서는 민청원의 붉은 피가 끓고 있습니다.…당과 수령을 위하여 싸울 때는 왔습니다. 당의 전사들이 극복 못할 난관은 없습니다. 로동당원들의 모범을 따라 용감하게 싸웁시다.…》

순선 동무의 두 눈에서는 적에 대한 증오의 불'길이 펄펄 일고 있었다.

한 치의 땅도 원쑤놈들에게 내여 주지 말며 일보도 퇴각하지 말라는 당의 정신으로 전투원들을 불러 일으킨 그의 토론은 첫 마디부터 전사들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다. 회의는 비록 짤막하게 끝났으나 당과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과 새 전투 명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려는 전사들의 결의는 불화산처럼 터져 올랐다.

민청 분조 회의는 돌격을 앞두고 전투원들의 일치한 념원과 지향을 더욱 강력한 하나의 투지로 묶어 세우는 위력한 힘으로 되였다.

당시 우리들에게는 일정한 회의 장소가 없었다. 우리는 어려운 전투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고지에서, 전호 속에서, 교통호에서 언제나 이와 같은 민청 회의를 하였다. 지어는 돌격선에서 속보를 돌리면서까지 회의를 하였던 것이다.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돌격 서렬의 앞장에는 순선 동무가 섰다. 전사들은 적 진지 20 메터 지점에까지 접근하였다. 순선 동무는 총가목을 힘있게 틀어 잡고 돌격 명령을 기다렸다.

이윽고 돌격을 알리는 붉은 신호탄이 포물선을 그으며 하늘 높이 솟아 올랐다. 순선 동무와 전사 우 경식은 날쌘 솜씨로 적의 화점에 수류탄을 던졌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적의 화점은 산산이 부서지고 그 속에 들어 박혔던 원쑤들은 몰살되고 말았다.

전사들은 성난 사자마냥 총창을 비껴들고 질풍같이 내 달렸다. 고지는 기관단총의 울부짖음 소리, 원쑤들의 비명 소리로 들끓었다.

순선 동무는 어둠 속에서도 허공을 허비며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는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우면서 고지에로 뛰여 올랐다. 고지는 삽시간에 우리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그러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적들이 또다시 무수한 포탄을 퍼부으며 고지에로 기여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였다.

거듭되는 적들의 반공격을 물리쳤을 때 고지 좌측 릉선에는 순선 동무와 부상 당한 몇몇 전사들만이 남았다. 수류탄과 총탄마저 떨어져 갔고 소대와의 련락도 단절되였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고지는 지켜내야 했다.

그는 오래'동안 간직하고 다니던 입당 청원서를 품에서 꺼내 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씌여진 글'발을 속으로 읽어 나갔다.

《…당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겠다는 것을 당 앞에 엄숙히 맹세합니다…》 그는 몇번이고 이 구절을 곱씹어 외웠다. 그리고 불같은 결의와 맹세를 다지던 민청 분조 회의를 생각하였다.

—그렇다. 당의 전사들이 극복 못할 난관이란 있을 수 없다. 우선 놈들의 시체에서 수류탄을 모아 오자… 이렇게 결심한 순선 동무는 전사들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고지 참호 앞에 쓰러진 적들의 시체에서 수류탄과 총탄을 하나 둘씩 모았다.

적들의 반돌격이 또다시 시작되였다.

놈들은 고지 정점을 향하여 아득바득 기여 오르고 있었다. 이때 적들의 행동을 주의 깊이 살피고 있던 오 순선 분대장이 갑자기 참호를 뛰여 넘어 원쑤들이 게바라 오르는 방향으로 맞받아 기여 나갔다.

《분대장 동무! 분대장 동무!》

전사들은 분대장을 다급히 불렀다. 그러나 순선 동무는 계속 기여 나갔다. 그는 참호 앞 약 30 메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바위 옆에 기여 가 납짝 엎드렸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적들은 경기관총수를 앞세우고 허둥 지둥 기여 올랐다.

10 메터! 5 메터! 적들은 점점 다가 왔다.

이윽고 적의 경기사수 놈이 바위 옆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순간 순선 동무는 총탁으로 그 놈의 골통을 내려 갈겼다. 그리고는 재빨리 그 놈의 경기관총을 빼앗아 들고 떼를 지여 기여 오르는 원쑤들에게 불벼락을 들씌웠다. 전사들도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측면 사격으로 적들을 쓸어 눕혔다. 순선 동무의 과감한 행동으로 하여 적들은 무리 죽엄을 당하고 말았다. 하지만 싸움은 더욱 치렬해 갔다.

이제는 적의 시체에서 모은 총탄마저 다 떨어졌다.

전사들은 순선 동무를 중심으로 전호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드린 맹세문의 한 구절을 읽고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이시여! 우리는 방금 원쑤와의 판가리 싸움에 나갑니다.

…우리들은 당신이 장백의 험산 준령을 넘나드시며 강도 일제를 족치신것처럼 우리들도 그 정신, 그 불굴의 의지를 계승한 당신의 전사답게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사들은 저마다 수령의 영상을 눈앞에 그려 보았다.

이윽고 전사들은 결사전에 나섰다. 적들은 또다시 참호 앞 20 메터 근거리에까지 접근하여 왔다. 그러자 순선 동무는 전우들을 향하여 소리 높이 웨쳤다.

《당과 수령을 위하여 앞으로!》

순선 동무가 앞장에서 원쑤들의 한 복판으로 맹호 같이 뛰여 들었다. 그는 단숨에 한 놈, 두 놈, 세 놈의 가슴팍에 총창을 꽂았다. 그리고 련'이여 또 세 놈을 총탁으로 까 눕혔다.

순선 동무는 여러번 적들의 흉탄에 부상을 당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쑤들의 가슴팍에 복수의 창날을 안기였다.

바로 이러한 때에 고지에 아군의 증원 부대가 도착하였다. 그들은 일거에 원쑤들을 소탕해 버렸다. 그러나 순선 동무는 의식을 잃고 땅우에 쓸어져 있었다.

정치 부중대장을 비롯하여 전우들이 순선 동무에게로 달려•왔다.

《순선이! 순선이! 정신을 차리라구…》

정치 부중대장의 무릎 우에서 순선 동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치 부중대장 동무! 우리 분대는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청원들은 출발을 앞두고 열린 민청 분조 회의에서 다진 맹세를 어김없이 실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가슴 속 깊이 간직했던 입당 청원서를 꺼내 정치 부중대장 앞에 내 밀었다. 그리고는 마지막 힘을 다 모아 《제가 죽은 후에라도 저를 조선 로동당에…》 하더니 그만 눈을 감고 말았다.

민청원 오 순선 분대장은 이렇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당과 수령을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우리는 이러한 민청원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조선 인민군 소좌 최 순보

영예로운 파견장



지금 나의 가슴에는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가 발급한 한장의 파견장이 간직되고 있다. 그 파견장에는 이렇게 씌여져 있다.

《…이 동무를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 공사에 파견함》

…나는 그 때 수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1958년 4월—전국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의 결의를 받들고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장으로 가는 탄원자들이 련일 수도에 모여 들고 있었다.

이 격동적인 날들에 나 역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의 귀에는 1930년대 공청원들의 노래가 들린다.

………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 나가자…
우리는 무산 청년이니 무산 청년답게
우리는 근로 대중의 청년 근위대…

또 다른 장면이 떠 오른다. 가렬한 전투가 벌어진 언덕, 용감한 한 전사가 원쑤의 화구에 몸을 던지며 웨친다.

《동무들이여!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앞으로!》

그리고 또한 재'더미 우에 공장과 도시를 일궈세우던 복구 건설의 나날들… 그것은 참으로 영광에 찬 력사다. 어찌 나만이 전진하는 력사와 생활에서 락오자가 된단 말인가! 나는 끝내 결심을 내리고 영예로운 파견장을 받았던 것이다.

…우리는 <조선의 지붕> 이라고 불리우는 개마 고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수도에서 떠날 때는 봄 비가 내렸는 데 랑림 산맥을 넘어서니 여기는 한 겨울이다. 앞을 분간하기 어렵도록 눈이 내렸다.

우리는 눈 우에 천막을 치고 첫날 밤을 지냈다.

《왜놈들두 여기에 발전소를 세우려고 병자년 (1936년)부터 10 년간 역사를 하면서도 그 기초조차 못 만들어 놓았네!》

우리를 마중한 지방의 로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참말이다. 산악 같은 언제를 협곡에 막고 창창한 호수를 만들며 랑림산맥 밑으로 100 리 수로를 가로 뚫고 수천년 동안 압록강을 향하여 흘러가던 장진강 물의 수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저 없이 일에 달라 붙었다. 겨울은 아득바득 다가 오고 가배수로 공사가 긴급하게 제기되였을 때 살얼음을 까고 물 속에 뛰여든 용감한 처녀 리 은식 동무와 청년 돌격대원들, 그들은 4 개월 간에도 불가능 하리라던 가물매기 공사를 불과 23 일에 끝마치였다.

고암산 꼭대기에 있는 철탑은 손이 닿으면 떵떵 얼어 붙었고 련일 휘몰아 치는 눈보라로 하여 철탑 꼭대기는 1 메터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웬만한 각오를 가지고서는 철탑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나 한시바삐 발전소를 일으켜 세우고 사랑하는 조국을 강력한 공업 국가로 되게 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불타는 청년 건설자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사택 마을의 닭이 얼어 죽는 추운날에도 태연하게 눈'길을 헤치며 고암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고추'가루와 담배로 발을 싸매고 불에 달군 돌을 가슴에 품은 채 허리에 바'줄을 매고 철탑에 기여 올라 해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정녕 추위를 참기 어려울 때면 우리들의 일터에서는 혁명 가요의 노래'소리가 언제나 높이 울리군 하였다.

이 짧은 글에서 결코 우리 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한 하많은 이야기들을 다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4 년간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던 것인가! 천막을 치고 첫날 밤을 지내던 벌판 우에 근 4천 여 세대의 문화 주택과 공공 건물이 들어 앉은 청춘 도시를 건설하였고 랑림 산맥을 가로 뚫는 100 리 수로도 관통했으며 하늘 높이 언제도 쌓아 올렸다.

《…당신들은 지난 기간 당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우리 나라 전력 공업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에서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였다.…본 전원 회의는 당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창조적 지혜를 남김 없이 바쳐 싸우고 있는 당신들의 로력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이것은 당 중앙 위원회 1959년 6월 전원 회의가 우리들 청년 건설자들에게 보내온 편지의 구절들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당의 높은 평가와 신임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분발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금년 중으로 제 1 호 발전소 조업을 보장하며 63 년도의 5.1절까지는 이 공사를 완공하겠다.

강계 청년 발전소—이는 사회주의 조국에 드리는 우리 시대 청년들의 또 하나의 로력적 선물이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은 수많은 건설장에서 얼마나 큰 로력적 위훈들을 세우고 있는가!

나는 조선 로동당의 후비대인 조선 민주 청년 동맹의 맹원임을 높이 자랑한다!

강계 청년 발전소 건설 트레스트

박 선 곤

직업에 대한 그들의 생각

직업 문제—이는 청년들의 절실한 관심사이다

직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과연 직업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는가?

아래에 직업에 대한 세 청년의 말을 소개한다

나의 행복감

나는 재작년에 초중을 졸업하고 곧 리발사로 되였습니다. 나의 생활에서는 언제나 기쁨이 떠날 줄을 모르며 가슴에는 행복이 차 넘치군 한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리발소에 들어온 손님들은 우리의 손에 의해서 깨끗이 됩니다. 나는 자주 창문 너머로 밖을 내다 보군 한답니다. 리발한 손님들이 산뜻한 기분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흐뭇합니다.



나는 이런 때이면 나의 직업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 본답니다. 그러면 나의 머리에는 어느듯 질풍같이 앞을 달리는 웅장한 기관차의 형상이 떠오르군 해요.

이 기관차는 수많은 부속과 부문들로써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이 수많은 부속들 중 나사못이 하나 잘 못 되여도 기관차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때로는 멈추어 서지 않으면 안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각이한 부문을 찾이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도 혁명에 없어서는 안될 한 개의 부문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혁명의 각이한 초소를 지키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어떤 것이나를 막론하고 모두다 영예로운 것이 아닙니까.

나의 직업도 우리의 생활을 위생 문화적으로 꾸리는 데 없어서는 안될 혁명 초소이지요.

나는 처음에 한 소년단원의 머리를 곱게 깎았는데 그 때의 기쁨이 아직도 가슴 속에 생생히 간직되고 있지요.

소년단원은 산뜻하게 깎은 머리를 거울에 비쳐 보더니 경례를 깍듯히 부치며 《누나 고맙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나는 그가 얼마나 귀여워 보이는지 몰랐으며 가슴에는 행복감이 출렁이더군요.

나는 이런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자기의 직업에 대한 영예를 간직하고 자신의 기술 기능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리하여 남들이 3 년이 지나도 힘들다는 5급의 기능을 단 한달만에 소유했으며 계속 노력하여 4 개월만에는 다시 한급 더 높혔습니다.

나는 자기의 기술 기능이 높아지면서 부터 결코 리발소내 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하루 일을 끝마치고 근처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찾아 다녔으며 가까이에 리발소를 가지지 못한 공장 로동자를 찾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한번은 사동 주물 공장을 찾아 갔더니 오랜 주물공인 한 아바이가 나의 어깨를 정답게 만져 주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나는 쇠'물을 부어 육중한 기계를 만들고 너는 리발을 하지만 우리의 로동은 다 보람차지, 우리는 다 같이 혁명 사업을 하고 있거던.》

나는 이 오랜 로동자 아바이의 말씀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날 길'가에서 한 영예군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불편 하여 리발소 출입을 못한 관계로 머리가 덥수룩 했습니다. 나는 그만 량심에 큰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피로써 지킨 조국 땅에서 오늘 우리들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음날 나는 그의 집을 찾아가 리발을 해 주었더니 그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일을 사랑하며 자기일에서 보람을 느낄때 처럼 무한한 행복감을 느껴 본적은 없어요!

평양시 사동 리발관

민청 분조장 **장 순자**

나는 나의 직업을 자랑 합니다



나는 얼마전에 해발 2,542 메터나 되는 관모봉 꼭대기로 지질 조사하러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높이 10 여 메터나 되는 아슬아슬한 어름 절벽을 거이 20 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어름을 쪼아서 발디딤을 만들어야 했고 그것도 한발'자국만 잘못 디디면 굴러 떨어질 위험한 순간을 걸음마다 겪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난관과 위험도 무릅쓰고 그 절벽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그것도 조국의 심산, 그 누구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범이나 곰, 산'돼지 같은 산'짐승들과 불과 몇 메터의 간격을 두고 동무 삼아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천신만고하면서 우리는 드디여 광휘로운 령마루에 올라 섰으며 우리들이 목적한 광석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때의 기쁨이야 어찌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광석을 손에 쥔채 덩실덩실 춤도 추었으며 높은 산정에서 혁명가도 부르고 만세도 불렀습니다. 왜 이러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속에는 벌써 공장에서 기계를 깎고 있는 선반기며 협동'벌에서 일하고 있는 뜨락또르, 나라의 동맥을 이루는 철로나 철교등이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가득찬 은금보화를 찾아내는 우리들의 로력의 열매는 광산과 용광로, 공장들을 걸쳐 인민 경제에 유익한 수만가지의 기계가 되고 원료들이 될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인민 경제 각부문의 첫 공정을 담당한 영예로운 초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나는 나의 직업을 무한히 사랑하며 또 자랑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조국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보물을 발견하고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를 두고 《집을 떠메고 다니는 사람》 들이라고도 하지요. 물론 저이들 자신도 심산 속의 천막 속에서 황홀한 도시의 샨데리야나 유보도를 을 생각 하는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로력이 전국에 휘황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하나의 귀중한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는 전 생애를 바쳐 이 일에 종사하고 싶습니다. 구름이 둥실둥실 발아래로 흐르는 높은 산정에 걸터 앉아서 아름다운 조국 산천을 굽어 보며 무진장한 조국의 부원을 생각할 때 하루에 천리씩 산야를 주름잡아 달려도 언제나 자기 노력이 부족할 것만 같이 느껴 집니다.

물론 그 어떤 직업을 가진 동무들이건 다 자기 직업을 무한히 사랑하겠지만 나역시 일생을 통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가장 먼저 보는 산정의 영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적은 로력이 조국의 룡성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여 나의 가슴은 언제나 부풀어 오르고 진정 삶의 보람을 느끼군합니다.

중공업 위원회 제 8 지질 조사단 5,15 돌격조

조장 **전 하성**

나의 고향

내가 교원으로 일하는 룡암 중학교는 사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쌓인 심심산'골에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 처음 오는 손님들은 골짜기들이 좁고 산들이 높기 때문에 누워야 하늘을 볼 수 있다고들 한답니다.

내가 처음 이 심심산'골로 배치되여 오든 때 나의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섭섭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런 마음은 살아지고 말았지요. 정말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나 이 고장이 나의 집과 고향처럼 생각키우며 이곳을 떠나서는 생활의 보람을 느끼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생각해 보십시요.

내가 아침 일찍히 교실 창문'가에 서서 그날의 일과를 곰곰히 생각하고 있노라면 사방에서 아이들의 씩씩한 노래'소리가 들려온답니다. 우리 학교는 세'골, 말골, 절골 등 일곱개의 깊은 골짜기가 부채'살처럼 모여든 곳에 자리잡고 있는 데 그것은 이 골짜기들에서 나오는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부르는 노래'소리랍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정답고 사랑스러운지 모른답니다. 나는 이런 때이면 으레히 (저 학생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 데 나의 작은 힘이 나마 이바지하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으로 생활의 보람과 기쁨이 가슴에 차 오르며 새힘이 솟군합니다.



나는 종종 짐승들의 울음 소리가 들리는 밤'길도 무서운줄 모르고 학생들의 가정을 찾아가 개별 교양을 해 주군 합니다. 그것도 때로는 20'리가 넘는 산'길을 가야할 때도 많지요, 그리고 학생들만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학습을 도웁기도 한답니다. 이때 그들이 나를 반가히 맞이해 주는 기쁨도 기쁨이거니와 더 큰 보람은 그들이 눈에 띠우게 발전해 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로 나날이 문화적으로 발전해 가는 이 고장의 력사의 한 구석에는 나의 노력도 깃들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노력이 깃들어 있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할 때 이 고장이 얼마나 정이 붙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고향처럼 생각키우며 자신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바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지요.

한번은 내가 단임하고 있는 학급의 전 학생이 우등 최우등을 하였는 데 그날 저녁 나는 너무나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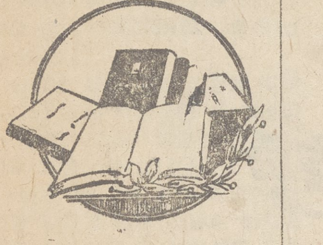
혹시 일부 동무들은 심심산'골의 교원이 무엇이 그리 재미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정이 들고 자기 노력이 깃들어 있는 이 고장에서 교원 생활을 하면서 영원히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직업에 대한 영예와 긍지는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생활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정력을 어떻게 더 기우리며 보람있게 일하는가에 있는 것이라고 봐요.

평북 삭주군

룡암 중학교

교원 **한 옥선**



청년 시절과 학습

김 국 훈

창조적 열정과 혁명적 락관으로 충만된 청년 시절— 이것은 천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인간 생활에서 가장 고귀한 시절이다.

김 일성 동지는 **《청년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라고 지적 하시면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청년들이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실로 조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의 것이며 조국의 륭성 발전은 우리 청년들의 역할 여하에 크게 달려 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혁명 선배들이 높이 추켜 들었던 혁명의 붉은 기'발을 넘겨 받아 그것을 공산주의 령마루에 휘날려야 한다.

오늘 사회주의 건설과 찬란한 공산주의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청춘의 모든 정열과 지혜와 능력을 바쳐 싸우는 것— 이것은 로동당 시대의 우리 청년들의 고상한 공산주의적 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이렇듯 혁명 선렬들의 숭고한 위업을 계승할 력사적 사명을 지니고 있는 고귀한 청년 시절을 우리는 값 높게 살아야 한다.

청년들은 건장하고 생기 발랄하며 태산을 떠 옮기고 바다도 막을만한 용맹스러운 힘과 왕성한 혈기로 들끓는 세대들이다. 청년 시절에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하고 귀중한 특성은 진리와 숭고한 리상에 대한 열화 같은 동경심, 새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진취성과 용감성, 난관을 뚫고 나가는 강의한 투지와 대담성,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감수력이 빠른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원대한 전망과 높은 리상을 지향하면서 부단히 새것을 배우는 혁신적 기개와 무진장한 창발성, 진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려는 정신이 강하다.

청년들은 이 귀중한 특성을 자각하고 부단히 학습하여 시대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리론과 과학 기술을 소유하여야만 자기의 불타는 정열과 무궁무진한 힘을 진정한 혁명적 력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때문에 인류가 달성한 과학의 성과들을 섭취하고 진리를 탐구하며 새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학습하는 것은 청년 시절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이며 중요한 문제이다.

맹목적인 정열은 무력하며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 리론과 과학 기술에 의하여 지도되는 정열 즉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수단도 구비한 정열만이 기적과 창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이 생활에서, 투쟁에서 발양될 때 그곳에서는 항상 부단한 혁신과 전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현 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실현하며 인민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 기술 개건을 실현하여 사회주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천리마 시대, 전면적 기술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절한 혁명 임무는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우리들은 선진 과학과 기술을 충분히 소유하고 그를 발전시킴이 없이는 일보도 전진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은 청년들 속에서 학습 열의를 부단히 높이며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을 절실하게 요구한다.

학습— 이것은 단순히 청년 시절의 특성으로부터 제기되는 과업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술 혁명의 시대를 걷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가장 긴요하게 요구하는 첫째 가는 과업이다.

인류가 달성한 선진 과학과 기술 문화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실현해야 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의 주력'군으로서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될 수 없다.

학습은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촉진시키며 공산주의 사회의 역'군으로 준비 되기 위한 청년들의 혁명 과업이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겠는가?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서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청년들이 맑스—레닌주의와 우리 당의 정책을 심오하게 체득하며 과학 지식을 충분히 소유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하신 바와 같이 어느 부문에서 일하든 무엇을 전문으로 하든 간에 전체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혁명 투쟁에서 라침판으로 되는 맑스—레닌주의를 학습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함으로써만 공산주의 세계관을 철저히 확립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승리를 확신하며 자기의 모든 정력과 재능을 진정한 혁명적 정열로 전환시킬 수 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인 우리 당 정책의 본질을 심오하게 폭 넓게 연구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은 조선의 현실에 적용된 맑스—레닌주의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 정책과 로선이 어떤 맑스—레닌주의 원칙과 리론에 립각하여 그것을 우리 나라의 현실에 어떻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는가를 리해함으로써 당 정책의 정당성과 현명성을 진실로 자기의 살과 뼈로써 만들 수 있다.

현 시기 맑스—레닌주의 학습과 당 정책 학습을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제 4 차 당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당 중앙 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이다. 이 문헌은 우리의 실 생활에 구현된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총화하고 일반화한 력사적 문헌인 동시에 휘황 찬란한 전망 과업을 명시한 강령적 문헌이다.

우리 청년들은 높은 정치 리론적 자질을 갖출 뿐만 아니라 선진 과학과 기술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 학습— 이것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전투적인 혁명 과업이다. 과학과 기술의 요새를 점령함이 없이는 당면한 기술 혁명과 문화 혁명 과업을 실현할 수 없다. 누구보다도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한 우리 청년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놀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선진 과학과 기술을 광범히 보급하는 데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부문에서 일하든지 적어도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기가 맡은 사업에서 필요한 과학과 기술 지식에 정통하여야 한다. 인류가 달성한 과학 기술의 성과들을 파악하고 그를 발전시키지 않고 어떻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주력'군으로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상과 같은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선 자기가 학습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배우는 립장을 옳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학습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의 명예나 자신의 리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혁명을 더욱 빨리 촉진시키고 옳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며 자기의 정력과 지혜를 사회주의 건설에서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제기 되는 실천적 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배운 것을 보다 훌륭하게 리용하는 것— 이것이 학습에서 갖추어야 할 혁명적 립장이다. 청년들은 항상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과학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인민상 계관인인 주 종명 동무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문제의 해결에 자기의 모든 심혈을 기울여 불철 주야로 분투하면서 3천 여 회에 걸치는 실험을 거듭하고 연구한 결과 철 콕쓰 생산에 성공하였다. 날마다 우후 죽순 처럼 배출되는 천리마 시대의 혁신자들, 창의 고안자들, 발명가들은 모든 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혁명적 기개를 발휘함으로써 기적과 혁신을 이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습하는 립장을 옳게 수립

하여야만 어떤 것을 배워야 하며 어떻게 배워야 하겠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리익에 부합되는 쓸모 있는 학습을 보장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 청년들은 학습 태도를 옳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은 학습에서 옳은 태도를 가지기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일체 낡고 그릇된 견해들을 시정 극복하여야 한다. 과학과 기술 그 자체가 생산 활동의 직접적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또 실천 활동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과학 자체도 발전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마치 어떤 선발된 사람들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과학과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한편 생산 활동에서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리론을 무시하고 낡은 경험에만 매여 달리는 그릇된 경향과도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인쇄 공업 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자동 식자기도 온갖 보수주의와 신비성을 반대하며 그를 철저히 극복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김책 공업 대학 교직원 학생 집단의 창조적 지혜에 의하여 제작될 수 있었다.

청년들은 보수주의와 신비주의를 불살라 버리면서 모두다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하는 혁명적인 태도를 가지고 배워야 한다.

둘째로 청년들의 학습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완강한 투지를 가지고 꾸준하고 진지하게 배우는 것이다. 과학의 요새에는 탄탄 대로가 없다. 간난 신고를 무릅쓰고 인내성 있게 투쟁할 때만이 이 요새를 점령할 수 있다. 《구우는 돌에 는 이끼가 안낀다.》는 속담에도 있는 바와 같이 꾸준한 노력은 발전을 가져 오고 정체와 태만은 퇴보를 가져 온다.

청년 시절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조급성은 단시일 내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학습에서 권태와 파동성을 낳을 수 있다. 이것은 과학 기술의 높은 요새 앞에서 물러 서는 것이다.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물러 설줄 모르는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분초를 다투어 부단히 분투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15 여 성상에 걸치는 준엄하고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혁명 선렬들이 어떻게 학습하였는가? 령하 40도의 혹한과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끝없는 밀림을 넘나 들며 수백 수천리의 강행군과 수십일씩 낟알 구경 못하면서 일제를 반대하여 가렬한 투쟁을 전개하면서도 학습은 유격대원들의 생활에서 일상적인 혁명적 량식이였다.

김 일성 동지는 유격대원들은 적과 투쟁하면서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유격대원들의 학습을 친히 지도하시였고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돌리시였다. 그리하여 유격대원들은 혁명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글을 배워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신 김 일성 동지의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모래를 넣은 주머니를 땅 우에 펴놓고 글 쓰는 련습을 했고 엄동설한의 설령을 넘는 행군의 휴식 시간이면 눈우에다 글을 썼고 사격 련습을 할 때도 글을 외웠으며 야간 행군을 하면서도 구구를 외웠다. 이와 같이 간고한 혁명 투쟁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가능한 모든 시간을 짜서 학습한 항일 빨찌산들의 혁명적인 학습 태도와 고귀한 정신은 우리 청년들의 구감으로 된다. 청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학습 열의가 충만된 생활이 꽃피도록 하여야 한다.

세째로 과학 앞에서 허식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여야 하며 모르는 것은 허심하게 배우고 아는 것은 더 깊고 폭 넓게 리해하기 위한 진지한 학습 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청년들은 전통적인 우리 인민의 미덕인 근면하고 겸손한 품성을 학습에서도 살려 모르면서도 아는체 하고 적은 것을 알고 자고 자대하는 과학 앞에서의 일체 거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들은 학습에서 토론과 론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에서 토론과 론쟁은 학습 열의를 부단히 제고하며 탐구력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된다. 론쟁과 의견 투쟁이 없이는 과학 발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학습의 기본 원칙은 우리의 생활을 통하여 그 위력이 여실히 발현된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우는 즉 리론과 실천 및 과학과 생산 활동의 결합 속에서와 불꽃 튀는 로력 투쟁 속에서 과학과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어디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일하며 배울 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훌륭한 배움터들이 구비되여 있다.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과 농목장들은 과학 기술을 실천을 통하여 체득할 수 있는 훌륭한 학교이다. 또한 공장 기업소 및 국영 농목장,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조직 운영되고 있는 기술 학습반은 생산 활동과 학습, 로동과 과학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혁신적 경험들을 교환하고 배울 수 있는 과학과 기술 학습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 기관들과 함께 대규모적인 공장 기업소들에 조직된 공장 대학, 고등 기술 학교들과 대학 및 고등 기술 학교들에 조직된 통신 및 야간을 리용하는 교육망에 적극적으로 망라되여 과학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오직 우리 청년들 앞에는 당과 수령이 베풀어 주신 이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학습함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청년들은 자기의 준비 정도에 상응하게 체계적으로 리론 자체를 잘 리해해야 한다. 리론을 파악하지 않고는 자기 힘을 혁명적 력량으로 발휘할 수 없다.

리론을 정확히 리해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구체적인 실천 활동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현실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 체계적인 리론의 습득과 현실이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의 리해를 통일시킬 때 학습에서 리론과 실천을 유기적으로 통일시키는 기본 원칙이 구현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의 학습에서 중요한 방법으로 되는 것은 자습이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과 복잡한 조건하에서도 독자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하며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자력 갱생의 정신을 학습에서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자력 갱생— 이것은 공산주의적 사업 기풍이며 혁명적 정신이다. 학습에서 자력 갱생의 정신을 구현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과 수준에 맞게 실천적인 학습 계획을 작성하고 자립적으로 연구하며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학습 기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적인 창조적 사고 활동을 발양시키며 당면하게 제기되는 긴요한 문제 해결에 자기 력량을 집중할 수 있다.

우리 청년들은 사람들을 교양 개조하는 공산주의 학교일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술 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동원되여야 한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서 대중의 지혜와 창발성이 가장 훌륭히 발현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발명과 창의 고안들이 속출되고 거기서는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집단적으로 배우며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전당이 학습하자》는 우리 당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배우고 배우고 또 배우면서 여섯 개 고지 점령에서와 나라의 전면적 기술 혁신에서 선진 돌격대가 되자.



엠뻬라 분진 세척제를 창안

민청원 최 창호 동무는 순천 석회 질소 비료 공장 뇨소 청년 직장 수리 천리마 작업반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날 그는 민청 학습회에서 설비 리용률을 제고할 데 대한 수상 동지의 교시를 학습하고 돌아 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자기가 맡고 있는 타브 압축기가 자주 고장이 생겨 기대의 가동률이 불과 50%도 되나마나 하였던 것이다.

고장의 원인은 주로 엠뻬라에 분진이 붙어 탄산 가스의 압력과 량을 감소시키며 축의 진동을 발생케 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며칠 안가서 축을 마모시키거나 휘게 하였으며 3일에 한 번씩은 꼭꼭 기대를 해체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한 번 기대를 해체하자면 8명의 로력이 무려 6시간이라는 공시간을 드려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 고장을 퇴치하고 기대의 가동률을 100%로 높일 수 없을가?) 하고 생각한 그는 분진에 대한 세밀한 연구에 달라 붙었다. 그는 침식을 잊다싶이 연구에 몰두하였다. 미세한 분말을 만드느라고 밤을 새워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니였다. 그는 직장 기술 학습에서 배운 문제를 하나하나 다시 학습하면서 막힌 고리를 풀려고 애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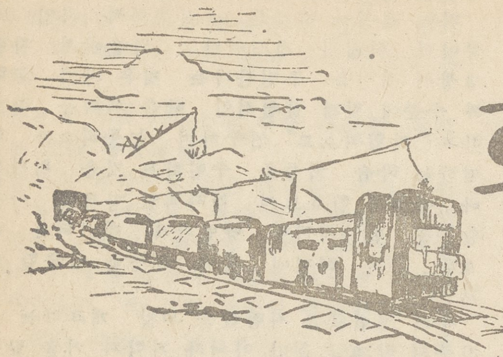
이렇게 고심의 나날을 보내든 그는 어느날 번개같이 떠오른 생각이 있어 분진을 따뜻한 물(60도) 속에 넣어 보았다. 그랬더니 이외에도 분진은 말끔히 녹아 버렸다.

여기에서 실머리를 찾은 그는 힘겹고 어려운 고비를 이겨 가면서 진행한 수 십번의 실험 끝에 기포 상태에 있는 증기를 만들어 엠뻬라를 세척하는 데 성공하고야 말았다. 그후 연구를 거듭하여 증기에다 가스를 배합하는 방법으로 세척 시간을 더 단축시켰다.

그리하여 기계를 분해하지 않아도 엠뻬라의 분진을 말끔히 세척하게 되였으며 가동률을 100%로 제고시켰다.

더구나 기대를 해체할 때 쓰는 값 비싼 《수주》를 절약하게 됨으로써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 능률을 150%나 높였다.

그는 지금도 기술 혁명 시대의 청년답게 부단히 새것을 탐구하면서 기술적 창안을 위하여 자기의 온갖 정력과 재능을 다하고 있다.



후보 당원

로동당원들

무더운 여름철이다. 송남 역에서 청년 탄광으로 넘어 가는 고개'길로 한 청년이 씩씩하게 걸어 가고 있다.

고개'마루에 올라선 그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기쁨에 찬 얼굴로 록음 우거진 백운산과 아늑한 골짜기에 자리잡은 탄광 마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중기 동무이다.

그는 고중을 졸업하자'바람으로 그렇듯 자기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청년 탄광으로 달려 온 것이다.

두 중기 동무는 처음에 탄광 물정을 잘 몰라서 갱 내 보수 부문에서 일하게 되였다.

그러나 그 후 차차 알고 보니 갱내는 갱내이지만 보수 작업이란 비교적 쉬운 일이였다.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 설 것을 결심하고 이 곳 탄광에 달려 온 그에게 보수 작업이 마음에 들리가 없었다. 그는 매일같이 갱장을 찾아 가서 막'장 일을 시켜 달라고 졸라댔다. 그러나 갱장은 그가 학교를 갓 졸업하고 로동에 단련되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차차 두고 보자고 하면서 그를 돌려 보내군 하였다.

중기는 어느 날 탄광 민청 위원장 동무를 찾아 가 떼를 썼다.

중기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난 민청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중기 동무, 막'장 일이란 어려운 일이요. 그리고 일정한 기술도 필요한 것이구…》

《념려 마십시오. 힘은 뒀다 어데다 쓰겠습니까! 기술이야 배우면 될 것이구요…》

그 후 중기는 자기의 소원대로 막'장에서 일하게 되였다. 워낙 기운이 장사인 중기는 남들보다 곱절이나 힘을 쓰며 막'장 일에 전심했으나 좀처럼 성과는 오르지 않았다. 더구나 그가 막'장에 들어 가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굴진은 곧 석수가 쏟아지는 어려운 고비에 들어 서게 되였다. 막'장에서 석수를 맞아 본 사람은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이지만 비오듯 퍼부어 내리는 차디찬 물 속에서는 여름에도 뼈까지 저려 드는 것이다. 탄광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도 이 고비를 넘어 서기란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중기는 여름철에 왔기 때문에 겨울철 준비를 해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기는 이런 사정을 동무들에게 이야기 하거나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며칠 동안은 말 없이 견디여 나갔으나 점차 중기의 결심은 시련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공연히 해 내지도 못할 일을 자원해 나선 것이 아닌가! 대학으로나 갔으면 편안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을 괜히 여기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던 중기는 자기 손이 가슴에 가자 흠칠 놀랐다.

그는 안 호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하던 조그마한 책을 끄집어 냈는데 그것은 조선 로동당 규약이였다.

이것은 그가 집을 떠나 올 때 로동당원인 자기의 아버지가 준 것이다.

《로동하면서 마음을 단련시키고 지식을 넓힌다는 너의 결심을 나는 기특하게 생각한다. 민청원인 너는 민청 조직 생활을 잘 하고 로동당원들을 따라 배우면서 훌륭한 당원이 되여야 한다. 어디에 가건, 어데서 일하건 당원인 이 애비 망신을 시키지 말아.》

중기의 눈 앞에는 이렇게 타이르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 올랐다.

문득 그의 눈 앞에는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로동당원들의 모습이 차례차례 떠 올랐다.

제일 먼저 떠 오른 것은 로동당원 현 원대 동무이다.

현 원대 동무는 송남 청년 탄광 제 일차 개발자로서 언제나 민청원들의 앞장에 서서 난관을 뚫고 나가는 동무이다. 이번만 하여도 휴가를 받았는데 석수 구역이 나오자 다른 동무를 억지로 휴가 보내고 자신의 모범으로 동무들을 고무하며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통신 대학에 다니는 윤 희경 동무가 1개월 간 등교 수업하러 평양에 올라 갈 때 일이다. 원대 동무는 우야 볼 일이나 생긴듯이 10 리가 넘는 역전까지 같이 가면서 이야기 하더니 기차가 떠날 림시에 학습장을 정성으로 꾸린 꾸러미를 들려 주고 왔던 것이다.

(로동당원들은 참으로 진실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생산과 학습에서 모범일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사소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정성으로 돌봐 주는 것이다. 어려운 일에서는 앞장에 서고 동지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 로동당원! 그들은 조국을 튼튼히 떠받들고 있는 기둥들이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어떤 희생도, 지어는 생명까지도 서슴 없이 바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을 따라 배우는 나는 어떠한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중기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뉘우침이라는 것은 언제나 때 늦은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가책을 하고 다시 분발하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것이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자기도 훌륭한 당원이 될 것을 몇 번이고 속다짐 하였다.

다음 날 씩씩한 걸음으로 작업장으로 나가는데 중기의 어깨를 누구인가 가볍게 쳤다. 뒤돌아 보니 바로 현 원대 동무였다.

《중기 동무는 일을 시작하자 마자 석수 구역을 만났으니 훈련도 없이 전투에 진입한 전사격이 되였단 말이요.》

《그러나 전사들은 돌격전에 서면 훈련은 없었어도 자기 맡은 일은 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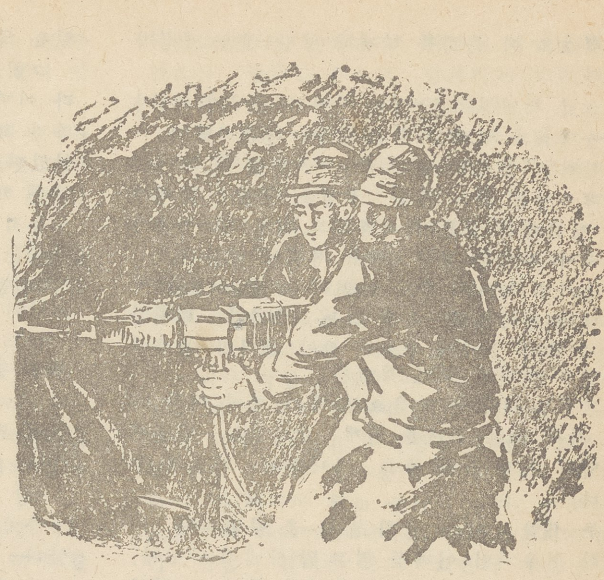
하고 중기는 따라 웃었다.

《그런데 이것이 작업에서 필요할 것 같애서…》

원대 동무는 종이 꾸러미를 주면서 말하였다.

그리고는 막'장으로 들어 가 버렸다.

중기가 갱내에 들어 가 꾸러미를 펼쳐 보니 그것은 새 동내의였다.



조직의 위임

중기가 탄광에 온지도 어언간 한 달이 지났다. 중기는 신창 탄광 기능 양성소에 강습을 받으러 가게 되였다. 이때 탄광에서는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착암, 적재, 동발 등을 할 수 있는 다기능공들이 절실히 요구되였던 것이다.

중기를 멀리까지 바래다 주던 민청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중기 동무! 이번에 가서 다기능을 소유하구 또 자기의 기능 급수를 한 급 높이고 와야 하겠네, 이것이 조직에서 주는 위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중기는 조직에서 주는 위임을 반드시 해 내고야 말 굳은 결의를 다졌다.

고중을 나온 중기는 리론 학습에서 다른 동무들'보다 쉽게 앞서'갈 수 있었으나 기술, 기능 수준은 수년 동안 탄광에서 단련된 동무들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그는 실습에 열성적으로 달라 붙었으며 한가지 공정을 몇번이고 반복해 보군하였다. 더우기 착암 기술을 배울 때에는 제일 힘들고 하기 어려운 올려 뚫기를 도맡아 하면서 기능을 련마해 갔다.

그러나 기술 기능 수준이란 그리 수월하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중기는 조직이 준 분공을 생각할 때마다 초조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이젠 불과 보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궁리하던 중기는 종전보다 배가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결심하였다.

그날 저녁부터 중기는 식사가 끝나자 마자 실습갱으로 달려 가서 실습을 하군하였다.

한번은 중기가 밤이 퍼그나 깊어서 하나의 발파구멍을 뚫고 다음 구멍을 어디다 뚫어야 할 것인가를 골돌히 새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위치를 짚어 주는 사람이 있었다.

중기가 놀라서 돌아다 보니 그것은 굴진 지주학 교원이였다. 사실 그는 중기와 토의할 일이 있어 중기의 숙소를 찾아 갔다가 거기에 없기에 여기로 왔던 것이다.

교원도 후더운 마음으로 중기 곁에 바싹 다가 서서 암질 상태를 쉽게 규명하는 방법과 구멍의 위치 선택 등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다.

두 사람은 날이 훤히 밝아 올 무렵에야 다정한 친우처럼 어깨를 걸고 막'장에서 나왔다.

이리하여 강습이 끝날 무렵에 중기는 착암기술을 비롯한 로—타기 운전법, 동발 세우기 등 다기능을 훌륭히 소유할 수 있었다. 양성소에서 돌아 오는 중기의 손에는 최우등의 성적표가 쥐여져 있었고 그의 가슴은 조직이 준 첫 분공을 훌륭히 수행한 자랑이 차고 넘쳤다.

선동원

어느덧 해가 바뀌고 백운산 기슭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였다.

로동과 생활에서 언제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중기는 선동원의 책임을 맡게되였다.

그러나 중기에게는 선동 사업이 처음인지라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중기는 열성적으로 하긴 하는데 청년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한번은 민청 위원장이 중기가 당 정책을 해설해 주는 데 참가해 보니 그는 《불상용적 모순》이요, 《상대적》이요 하는 어려운 술어들을 섞어 가며 청산 류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동무들이 잘 리해도 못 하거니와 흥미도 없어 하였다.

어느 휴일날 민청 위원장은 중기와 같이 시루봉 중력에 놀러 갔다. 그들은 노래도 부르고 자미있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다 문득 민청 위원장은 중기를 마주 보며 팔을 내밀었다.

《팔 씨름이나 한번 해 볼가.》

중기도 빙긋이 웃으며 그의 손을 지긋이 잡았다.

팔 씨름은 세번만에 중기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민청 위원장은 중기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제법 로동에서 단련된 셈이로군. 그런데 중기 동무, 선동원 공작을 하는 데는 반드시 곧쳐야 할 것이 있소.》

중기는 민청 위원장을 바라 봤다.

《선동원이란 사람들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하고 알기 쉽게 해설해 줘야 한다오.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오.》

그러면서 그는 《청년 공작원들에게 주신 그이의 말씀》을 중기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날'밤 중기는 회상기를 연구하면서 《대상을 고려함이 없이 남이 알아 듣지 못하는 <웅변>으로 멋부터 부리며 연설한다면 듣는 사람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말 공부로 되고 말것이다.》라고 하신 김 일성 동지의 말씀을 몇번이고 가슴에 새겼다.

그후 중기는 자신의 결함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자신도 모르게 어려운 술어들이 튀여나오군 하였다. 중기는 자기가 동무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흥미있게 당 정책을 해설 해 주지 못하는 참된 원인이 자기의 지식이 미약한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중기는 자기의 학습 태도를 결정적으로 고치고 특히 생활을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하였다.

그후 중기가 거처하는 합숙 13 호실 유리창으로는 밤 늦게까지 책상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이 비껴 있었다.

그는 당 정책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학습에서도 항상 모범이였다.

《채탄학》《천공 발파》《재료 력학》《탄광 안전 공학》등 두툼한 책들에는 붉은 줄이 급격히 늘어갔다.

이리하여 중기가 일하는 막'장과 합숙에서는 언제나 당 정책과 혁명 전통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며 기술을 가르쳐 주는 그의 굵다란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이렇듯 중기는 민청 조직에서 주는 위임을 충실히 집행했으며 로력 혁신자로 자랐고 그후 학습 강사로 되였다.

63일 간 전투

우리 당 제 4 차 대회에 드리는 이 탄광 젊은 용사들의 로력 투쟁이 한창 고조되고 있을 때 일이다.

젊은 탄부들 앞에는 두 달 반 동안에 447 메터의 운반갱을 완공하고 영구화 해야 할 긴급한 과업이 제기되였다. 만일 이 공사를 제시일 내에 완공하지 못한다면 채탄 구역에 무진장하게 매장되고 있는 탄을 캐 낼 수 없으며 탄광의 년간 생산 계획도 완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광산 당 위원회는 민청 단체 앞에 이 어렵고 영예로운 과업을 위임하였다. 갱속에서 탄광 민청 확대 집행 위원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열렬한 토론 끝에 19 명으로 되는 《박 길송 청년 돌격대》가 조직되였으며 중기는 돌격대 민청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막'장에서 혁명 가요가 높이 울려 나왔고 돌격대원들의 눈부신 로력 투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종전까지 하루에 70~80 광차의 버력을 실어 내던 것을 첫 날에 벌써 212 광차의 버력을 실어 내는 혁혁한 성과를 올리면서 굴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커다란 난관이 가로 놓였다.

출수가 심하여 바케쯔로 물을 퍼붓듯 쏟아져 나오는 석수 구역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배관이 메인 조건에서 공기가 희박해지고 미처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여 갑탕물이 거이 무릎까지 차는 가운데서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돌격대원들은 오직 제 4 차 당 대회에 빛나는 로력적 선물을 드리자는 일념으로 20분 간격을 두고 작업을 교대하면서 일'손을 다우쳐갔다.

이 때 작업장에는 비옷을 푹 둘러 쓰고 3 교대를 계속하다싶이 작업을 하는 동무가 있었다. 그는 다름아닌 중기 동무였다. 돌격대원 들은 처음 몇번이고 만류했으나 내중에는 그를 하는 수 없이 그냥 두군하였다. 한번은 억지로 갱구•밖에까지 떠밀어 내기까지 하였으나 능숙한 롱으로 넘겨치는 그를 보고 돌격대원들은 어찌는 수 없었다.

이와 같은 난관과의 투쟁이 계속되는 어느 날 작업 현장에서 민청 총회가 열리였다. 모든 민청원들이 한결같이 중기의 입당 보증을 찬성해 나섰다. 이 때 중기의 한 손은 맹원증에, 다른 손은 아버지가 준 당 규약 책에 스스로 올라 갔다. 그리고 그의 심장에는 당과 조직이 준 영예로운 임무를 기어코 완수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러나 작업이 거이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였을 때 다시금 뜻하지 않은 커다란 시련이 닥쳐 왔다. 그들은 암석층을 벗어나 토층으로 된 붕락 구역과 맞다들리게 되였다. 그것도 높이 40 메터나 되는 붕락이 였다. 이것을 밑으로부터 하나하나 나무로 쌓아 올리자면 거이 한달이 걸려야 했다. 그런데 완공날'자는 불과 18 일 밖에 남지 않았다.

중기는 박 길송 동지에 대한 이야기 모임을 가지였다. 백절불굴의 투사 박 길송 지대장에 대한 이야기는 돌격대원들의 심장을 파고 들었다.

혁명 투사의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은 돌격대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백 번 난관이 닥쳐 와도 기어코 이겨 내며 당 대회 앞에 자기들의 로력적 선물을 드릴 굳은 결심을 다지였다.

갱내에서는 우렁찬 《용진가》의 노래'소리가 울려 나왔고 돌격대원들은 일에 달라 붙었다.

이리하여 돌격대원들은 수많은 난관들을 물리치면서 63일만에 자기들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갱도는 영구화 되였다.

19 명의 돌격대원들이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갱내에서 나왔을 때 당 위원장 동무는 중기의 손을 굳게 잡아 흔들며 말하였다.

《중기 동무 곧 군당으로 가야 하겠소.》

중기는 감격이 치밀어 올라 한참 동안 당 위원장의 손을 잡은 채 말을 하지 못했다.

다음 날 군당에서 후보 당원증을 받고 돌아오는 중기의 마음은 날아 갈것만 같았다.

그는 청년 탄광이 한 눈에 바라 보이는 고개'마루에 올라 섰다. 언제인가 그가 처음 이 탄광에 올 때 땀을 드리던 곳이다.

이 2 년 동안 그는 보람찬 로동 속에서 얼마나 몸도 마음도 자란 것인가!

푸른 하늘, 록음 속에 즐겁게 지저기는 새들, 골짜기로부터 흘러 내리는 맑은 물소리, 이 모든 것이 중기를 축하하는듯 하였다.

본사 기자 하 만춘

조국 기행

대동강 천리'길

김 동 전

랑림 산맥의 랑림산, 소백산, 동백산 등 험준한 산악에는 울창한 밀림이 들어 차 있다. 여기서부터 대동강 천리가 시작된다.

뭇새들 우짖는 태고연한 이 수림 지대는 대동강의 운명과 관련되여 있다. 심한 한발의 갈수기에도 대동강수가 많이 줄지 않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일찌기 우리 조상들은 구수(淇水)라 불러 강변의 생활도 즐거웁던 력사의 흐름 대동강!

우리 인민의 생활이 담겨진 어머니강—대동강엔 자고로 전해오는 이야기도 많고 노래도 많다.

랑림 산맥의 검산령에서 우리의 천리 려정은 시작되였다. 검산령의 산곡을 흐르는 벽계수, 곡간수는 때로는 돌돌 물 소리도 맑게, 때로는 소용돌이치며 폭포를 이루고 또한 가닭시내를 이루면서 즐거운 생활의 흐름을 시작한다.

이 골짜기, 저 골짜기에서 모여온 실개천은 어느덧 하나의 강이 되여 류역 면적 19,385평방 킬로 메터와 류로 연장 439 킬로 메터에 달하는 우리 나라 제 5 위의 대 하천으로 되는 것이다.

이처럼 아름답고 정한 산곡에서 시작되는 대동강은 그 물이 또한 맑고 정하기 비길데 없다.

우리는 녕원, 덕천 사이의 조고만 림산 사업소에서 대동강에 둥실 뜨는 떼'목을 붙잡아 탔다.

천리 류로의 길동무가 된 우리 일행은 모두 세 사람이였다.

김 춘보 로인은 30년간 이 강을 타며 쓴맛, 단맛 다 겪은 오랜 류벌공이며 오 영식 동무는 이번에 처음 떼를 타는 민청원이였다.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대동강의 상하류를 오르 내리기 수십번이였으나 정작 떼를 타고 흐르기는 이번이 처음이였다.

그러나 영식 동무와 나에게는 이번 류벌이 각별히 인상 깊은 것이였다.

유유한 물'결우에 한가로히 흘러내리는 떼'목은 어느덧 녕원땅을 지나서 덕천땅에 잡아들었다. 그윽한 산봉들을 멀리 뒤에 남기고 흐르는 떼'목은 랑림 산맥을 벗어나 처음으로 벌판을 만났는데 그것이 덕천'벌이였다.

옥수수 농사 잘 되는 덕천'벌 한 복판에 깎아세워 놓은 듯한 산이 있는데 산 우에는 쌍동이 같이 두 봉우리가 가즈런히 솟았다.

《아바이! 저게 무슨 산입니까?》

영식 동무가 물었다.

《응 그게 덕천의 남매산이란다. 두 봉우리가 남매처럼 생겼다고 해서 남매산이라고 한단다. 저 산이 원래는 녕원 땅이였는데 옛날 갑신년 장마통에 떠내려 온 산이란다.》

춘보 로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러면서 춘보 로인은 옛날부터 이 고장에 전해오는 간단한 전설· 하나를 이야기하였다. 이야긴즉 이러하였다.

옛날 녕원 군수는 대대로 욕심이 사나웠다.

그런데 갑신년 장마철의 어느 날 아침에 군수가 일어나니 간밤까지 있었던 남매산이 간데 온데 없어졌던 것이다. 사면 팔방을 다 뒤졌으나 산은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날 덕천에서 그 산을 발견한 것이였다. 녕원 군수는 당장 덕천 군수를 찾아가 산값을 내라고 하여 해마다 산값을 받아갔다.

그런데 얼마후에 덕천에 똑똑한 군수가 부임되여 왔던 것이다. 그는 산값을 물지 못하겠다고 딱 잘라매였다. 두 군수는 산값을 내라느니 못 내겠다느니 싸우다가 덕천 군수는 《그럼 그 산을 가져 가시오.》 하고 내 맡겼다.

하는 수 없이 녕원 군수는 이튿날부터 백성을 총동원하여 이 남매산을 헐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했어도 산을 떠 갈 수는 없어 그만두었다는 것이다.

《그때 녕원 사람들이 괭이로 산을 파던 흔적이 지금도 있단다. 저기 저길 봐라! 저 패워 나간 자리가 그때 그 자리인데 <괭이덕>이라고 한단다.》

우리는 그 <괭이덕>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였다. 그것은 마치도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봉건 통치배들의 간악한 략탈 행위로 하여 눈물겨운 고역을 당했는가를 말해 주는 듯하였다.

그러나 오늘은 어떤가? 나는 여기서 남매산에 대한 현대 전설을 보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바이 지금은 저 산을 <승리산>이라고 한답니다. 왜냐면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과 지원군의 공동 포위 작전으로써 여기서 미군 두개 사단을 섬멸하였답니다. 그래서 <승리산> 이라고 한답니다. 지금은 저 승리산 밑에서 인민들의 즐거운 생활이 꽃피고 있지요.》

승리산을 에돌자 강변에는 수백 수천대의 자동차들이 바다를 이루고 있다.

《야! 아니 여기가 덕천 자동차 공장입니까?》

영식 동무는 흥분된 어조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승리 58>과 <승리 1010>의 고향이 바로 여기랍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대답하였다.

여기에서 년년 3,000 대이상의 자동차가 나오고 그의 생산 능력은 7,000 대 이상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옛날엔 산간 도읍 덕천이였으나 오늘의 덕천은 자동차 공업 도시로 되였다. 화려한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섰으며 끄리없는 시제품 자동차들이 이리뛰고 저리뛰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흐뭇케 하여 준다.

우리는 여기서 지방 산업 직물 공장의 톱날형 지붕을 바라보며 예로부터 유명한 이 고장 명산물인 덕천 항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산간의 공업 도시 덕천을 지나 구비구비 에돌면 옛 로인들의 감투처럼 생긴 북창의 감투산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고장의 경치 또한 아름답다. 강변의 다박솔밭, 잔듸밭, 벼랑터의 진달래, 강능굴의 자연미, 양수'골의 약수터, 주저앉아 살고 싶은 고장이다.

춘보 로인의 옛 이야기가 또 시작되였다.

《옛날 저 양수'골 정각에 순천 군수가 첩을 다리고 와서 피서를 하군 하였다지요. 그때는 강이 저 정각밑으로 흘렀답디다. 산천 경개 하두 좋와 떼'군들 주막에 들려 막걸리를 마시며 배따라기 뽑으면 군수의 첩이 떼'군들에게 홀려 묻어가군 하였답니다. 그래 군수는 군민들을 동원시켜 떼'목이 정각밑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강을 막고 이리로 돌렸답니다.》

과연 그말이 사실인 듯도 싶다. 옛날 강이 흘렀던 자욱이 지금도 력력한데 그 강 자욱과 지금의 강 사이에 모래섬이 길게 놓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옛날에는 《누예 섬》 이요, 지금은 《태평리》 이다.

우리는 강반에서 측량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여러 패로 나누워 측량을 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여기가 북창 화력 발전소 건설 대지라는 것이다. 1961년 4월 5일 수상 동지께서 직접 잡아 주신 대지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출력 100만 킬로 왓트의 대 화력 발전소가 생긴다.

송남, 무진대, 신창, 덕천 탄광을 비롯한 평남 북부 탄전이 집중되여 있고 장진강에서 평양으로 가는 송전선이 지나가 따로 그것을 세우지 않고도 우선 리용할 수 있고 평덕선 철도가 지나가 교통이 편리하다.

게다가 산높고, 강이 깊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 화력 발전소 건설에서 알맞는 고장이다.

인제 여기에서 화력 발전소가 생기면 하루에 석탄이 1천 500 톤이 들고 석탄재가 매일 1천 500 톤이 나오는데 그것으로는 건설 부재를 만들어 평양과 안주 화학 공업 기지들에 공급하게 될 것이다. 대동강을 막아 랭각수로 두벌 사용한 물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에

도 하류가 열지 않을 뿐더러 평남도 일대의 기온이 달라지고 농사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러면 대동강과 서해안의 어족들도 달라질 것이며 더 많은 난류 어족이 모여들것이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서는 조국의 자연도 변모하는 것이다.

인제 이러한 화력 발전소 공사는 곧 착수될 것이며 7 개년 계획 기간에 일부 직장이 조업을 개시할 것이다.

정말 흥분과 감격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의 조국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강반에 자리잡은 평남 북부 탄전 ─ 그것은 우리 나라 무연탄 총 매장량의 58 %가 매장되여 있는 풍부한 석탄 산지이다. 1957년과 58년에 걸쳐 민청·중앙 위원회의 파견장을 받고 숫한 젊은 건설자들이 이 고장 송남으로, 무진대로 달려왔다.

그후 건설자들은 악전 고투하면서 새로운 탄광들을 개발하였고 싸리나무 욱어졌던 처녀지들에 청춘 도시를 건설하였다. 하여 미룩령을 꿰뚫고 신창, 송남을 련결시키는 대 전차 복선갱도 관통되였고 지난 해 신창 청년 탄광의 로동자들은 전국적으로 150만 톤 채탄의 성과를 올렸다. 지금 그들은 그 기세를 조금도 늦춤 없이 수상 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1,500만 톤의 석탄 고지 점령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투쟁하고 있다.

어느덧 천천히 흐르는 우리 앞에는 다시 질펀하게 벌어지는 평야가 나타났다. 여기는 대동강 류역에서 한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는 성천읍이다.

아름답게 구비춋은 성천 십이봉은 대동강 맑은 물에 그림자를 드리웠고 산상에는 옛날 신선들이 노니렀다하여 회선정이라 불리우는 정자가 날아갈듯 서 있다.

성천 십이봉의 신비로운 산곡─그것은 중국 사천성 성도의 무산 십이봉과 예로부터 형제간의 명승이라 이른다.

강을 비껴 마주 앉은 점잖은 정각이 있어 내 물으니 춘보 로인은 그것은 송객정이라 한다. 본래 여기에는 동명관이라는 정각도 있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800여년 전 고려 시대에 건축한 300간의 즐비한 아름다운 목조 건물이였었다.

동명관은 그 옛날 우리 나라가 중국을 비롯한 북방 민족들과 친교와 교역을 가지기 위하여 지였던 웅장한 객사이다.

그런데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야수 미제는 그토록 아름답고 웅장한 동명관을 불살라 버려 지금은 옛날 손님들을 바래던 송객정만이 남아 있다.

조선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는 이 나라 강토와 문화재들을 그 얼마나 많이 불 살라 버렸던 것인가!

아름운 풍치와 유서 깊은 력사를 가진 성천'벌─성천'벌은 500만 톤 알곡 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 들끓고 있다.

뜨락또르 달리고 자동차 달리는 성천'벌, 꽹가리 울리고 북소리 울리는 성천'벌, 유서 깊은 성천'벌은 지금 청춘의 벌로 들끓고 있다. 춘보 로인은 이 벌을 30 년간 내리면서도 이처럼 흥겨운 벌을 처음 본다면서 잠시 때'머리를 멈추고 영농 준비에 분망한 벌구경을 하고 가자는 것이다.

강'가에서 우리는 춘보 로인과 구면이라는 이 고장 황 로인을 만났는데 황 로인은 만나자'바람에 춘보 로인께 담배를 권하는 것이였다.

영식 동무와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에 대하여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으나 황 로인의 《성천 담배》 이야기에만은 귀가 솔깃하였다.

《세상 유명한 것이 성천 담배요, 옛날 리조 봉건 왕조때에는 중일초나 대일초래야 대궐에 진상하군 했소. 그것이 바로 성천 황초라는 것이요…》

로인은 호기 있게 담배를 뻑뻑 빠는 것이였다. 그러던 로인의 얼굴에는 분개하는 빛이 떠 올랐다.

《그래서 진상이니 뭐니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야 어디 제 고장 담배나 변변히 태워 보았수…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게 우리 백성들의 재산이란 말이요. 그밖에도 성천엔 소산물이 많기로 이름이 높다우…예로부터 평양밤이라 하는 그 맛 좋은 밤은 이곳 성천의 밤을 이르는 말이웨다.

성천 땅에 조상인 이 밤은 그후·아지를 쳐 순천, 영유, 강서, 룡강, 남포 일대에까지 번식한 것이지요─》

그리고 보니 산 많고 산 험해도 성천은 좋은 곳이였다.

《또 성천 명주는 어떻구요. 성천 명주는 더 천 항라에 지지 않수다.》

로인은 멀리 외국에까지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성천 명주에 깃든 《옥량전》 이란 전설을 들려 주었다.

대동강의 맑은 물은 뽕밭을 모금 모금 적시여 그리도 고운 명주를 낳게 하였건만 그 옛날 질삼하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명주실처럼 실실이 오리지는 구슬픈 전설도 많았다.

노비의 몸인 옥량은 떡거머리 총각과 연분을 맺었지만 비천한 몸이라 어찌할 수 없었다. 주인 마님은 옥량더러 명주를 한참에 열두필, 두참에 스물네필, 세참에 서른 여섯필을 짜야 성례를 시켜 준다고 하였다.

삼년 석달을 베틀에 앉아도 그렇게는 짤 수 없어 옥량은 대동강수에 몸을 던지고 옥량을 찾아 헤매이던 떡거머리 총각은 성천 십이봉에 망루석이 되였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구슬픈 이야기인가!

우리는 황 로인과 헤여져 다시 강을 떠났다.

우리의 떼'목은 산명 수려한 산곡들을 지나 다시 무연한 진펄을 누비며 흘러 오는데

《아바이! 저게 무슨 굴입니까?》하고 영식 동무가 물었다.

《응 여기가 벌써 광도리로구나. 저게 십리굴이란거다. 참 놀랄 일이지! 옛날엔 강 따라 사람이 간다고 했지만 지금은 사람 따라 강이 가거던…》

춘보 아바이의 말에 우리는 그만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아니 강이 사람을 따라 가다니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네, 저 굴을 사람들이 뚫었답니다. 대동강이 저 굴을 통하여 연풍 저수지로 간답니다.》

《네?! 평남 관개 말입니까?》

영식 동무가 얼른 말을 가로챘다. 그는 평남 관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아마도 민청 학습에서 배운 모양이였다.

그는 신이 나서 말하는 것이였다.

《아바이! 저기로 흐르는 대동강이 어데로 가는지 아십니까? 금성 양수장에서 끌어 올린 청천강수와 합하여 열두 삼천리 4만 7천 정보를 적신답니다.》

《이 사람 너무 아는척 말게. 대동강이 적시는 땅이 그것 뿐인 줄 아나. 인제 평양을 지나 강선에 가면 무시무시하게 큰 양수장을 볼 걸세. 그게 기양 관개 양수장이라네. 대동강 물을 끌어 올린 기양 관개수가 얼마나 많은 땅을 적시는지 아나? 1천 5백리 수로로 5만 정보를 적신다네.》

그 예'날은 대동강이 그저 무심히 흘렀지만 오늘은 대동강이 이 나라 농업 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

참으로 귀중한 물이 비옥한 땅을 적시며 흐르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대동강은 참으로 은혜로운 강이며 어머니 강이다.

쉬임 없이 흐르는 물은 순천에 이르렀다. 평원선과 만포선의 렬차들이 소리치며 만나고 소리치며 헤여지는 순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순천은 좌우로 럽럽히 공장을 가지고 있다.

흐르다가 왼쪽에 얼마전에 새로 준공된 페니시링 공장의 산뜻한 건물이 보이고 멀리 산 넘어 이름난 지방 산업 순천 식료 공장의 굴뚝도 보인다.

우리의 머리 우로 하얀 백옥교가 가로 건너져 있다. 그것은 순천 대동교이다.

순천 대동교를 벗어나니 또 큰 공장 하나가 나타났다.

《저게 무슨 공장입니까?》

영식 동무는 인차 물었다.

《그게 순천 석회 질소 비료 공장이란다.》

춘보 로인의 대답이였다.

아찔하게 높은 굴뚝은 숨이 차도록 콱콱 하얀 연기를 토하고 있다. 알곡 500만 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을 지원하는 불'길이 황황 타오르고 있다.

농민들을 지원하는 불'길은 그 곁에서도 일고 있다. 그것은 지방 산업 순천 농기구 공장이다.

그곳의 용선로들에서 붉은 화광이 인다.

순천은 아름다운 도시이다. 석회 질소 비료 공장이나 제약 공장, 페니시링 공장, 벽돌 공장 등 큰 국영 공장들도 있고 식료 공장, 제지 공장, 세멘트 공장, 직물 공장, 농기구 공장을 비롯한 열 세개의 지방 산업 공장도 있다.

거리에는 영화관과 식당, 아빠트, 학교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이 모든 것들이 맑게 흐르는 대동강 우에 행복의 그림을 그려 놓고 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을 구길세라 삳'대질을 조심히 하며 흘러 내려갔다.

거리를 지나면 마을, 산을 지나면 벌, 어느 산 하나, 어느 바위 하나 그냥 스치고 지날 수 없는 조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누비며 우리의 사랑하는 강─대동강은 흐르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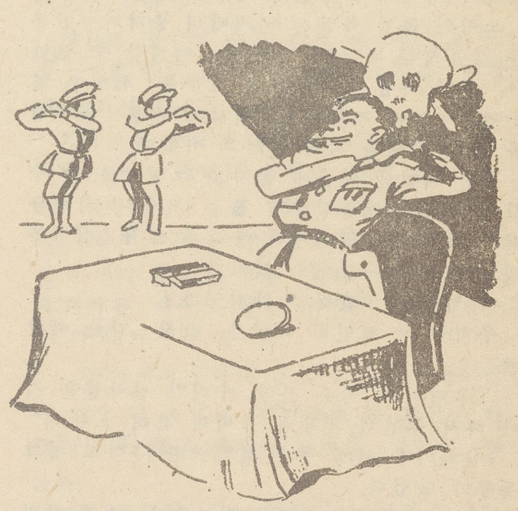
만수의 려행기
—암흑의 남조선에서—



① 서울 거리에 들어선 나는 인간 백정 박 정희란 놈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때마침 식사 시간이였는데 한개 중대 가량의 《호위병》들이 몇겹으로 박 정희의 식탁을 둘러싸고 있었다. 박 정희란 놈은 이렇게 《호위》 없이는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잔다는 것이다.

② 식사가 끝난 후 그놈은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의장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놈을 눈여겨 보았다. 인간 백정의 몰골이란 과연 꼴불견이 였다. 키는 난쟁인데다가 쪽제비 얼굴을 한 자인데 게다가 큼직한 군모까지 덮씌워 놓으니 짐승이 앉았는지 허수애비가 앉았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런데다 량 어깨에 달려있는 커다란 별들이 선듯 눈에 띄였다. 분위기는 삼엄했으나 나는 그만 웃음보를 터뜨리고야 말았다.

얼마 전에 이 인간 백정은 제 손으로 별 두개를 더 달아 자칭 《대장》이 된 것이다. 그리고는 자신만이 별 두개를 더 단 것이 멋적었든지 인간 도살에 이름난 《장령급》 《령관급》



《위관급》 졸개들을 수백명 모아 놓고 《공로에 따른 응분의 처사》 라고 떠벌리면서 크고 작은 별들을 하나 혹은 둘씩 나누워 주었던 것이다.

③

때마침 《내각 수반》 송 요찬이란 놈이 미욱하고 포악한 얼굴에 간사한 웃음을 지으며 들어 왔다.

《일찌기 일본군 <중대장>으로 있으면서 나는 <대동아 전쟁>에 참가하였었다. 그 전쟁시 나는 중국 사람들을 무더기로 죽이여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다 했었다. 8.15 이후에는 <륙군 특무대장>과 같은 고등 정탐관으로 있으면서 일제 때와 못지 않은 <공로>를 세워 아메리카 상전에 <충성>을 다했단 말이야.》

이렇게 박 정희라는 놈이 뽐내며 말하자 송 요찬이란 자가 지지 않으려는 듯 대답하였다.

《본관도 <제 7사단 9련대장>으로 있을 당시 제주도 도민 4분지 1을 죽였고 전남 곡성군 상거리에서는 한꺼번에 600 여명을 죽였지요. 그 뿐이겠소. 4월 인민 봉기시에는 <계엄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수 많는 청년 학생들과 백성들을 죽인 것은 남한 천하가 다 아는 형편입지요.》

《군사 정변》 후 불과 40일 만에 애국적 인민들을 10 만 여명이나 검거, 투옥, 학살한 살인귀 놈들의 입에서는 그야말로 총질과 칼부림, 그리고 피비린내 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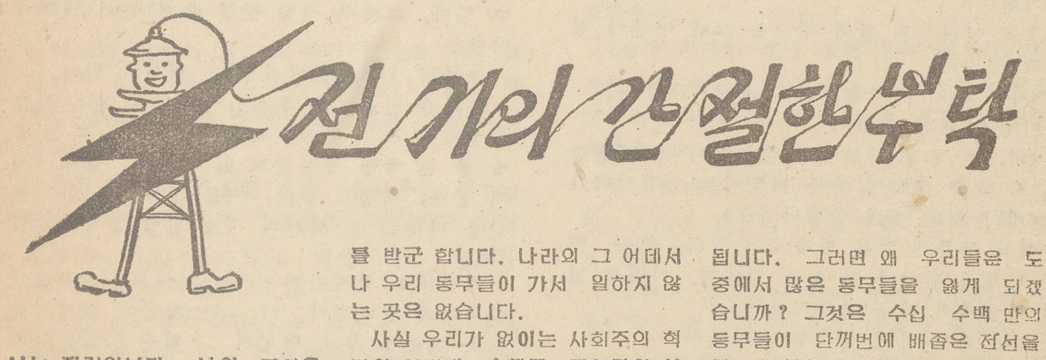
④박 정희란 놈은 그 주제에도 어떤 용이나 쓸듯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 나더니 《기압》 련습을 하는가 하면 빈손으로 《칼부림》 연극을 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송 요찬이란 놈도 원숭이 같이 그를 따라 유도 련습을 하노라고 버썩 떠들어댔다. 이 때 한 법관이 들어와 흠칫 놀라며 차렷 자세를 취하였다.

박 정희란 놈은 그에게로 바투 다가 가더니

《그래 너는 하루에 몇명씩이나 재판하는가?》

《네네, <보행 위반자만 해도 하루 600 명은

전기의 간절한 부탁



나는 전기입니다. 나의 고향은 수풍 발전소입니다.

우리가 발전소를 떠날 때 우리는 제각기 임무를 받는답니다. 어떤 동무들은 공장에 가서 선반기나 여러가지 기계들을 돌리고 어떤 동무들은 건설장의 기중기를 움직이고 또 어떤 동무들은 가정과 사무실을 찾아 가 밤에 불'빛을 밝혀 줄 임무를 받군 합니다. 나라의 그 어데서나 우리 동무들이 가서 일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없이는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적 수행도, 공산주의 사회 건설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발이 없기 때문에 아무 길이나 걸어 가지 못한답니다.

우리는 다만 전선이라는 줄을 타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목적지까지 가는 로정에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을 겪군 합니다. 그것은 많은 동무들을 도중에서 잃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도중에서 많은 동무들을 잃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수십 수백 만의 동무들이 단꺼번에 배좁은 전선을 통과하자니 서로 부딪치고 마찰되여 열로 변하여 공중에 값 없이 날아 나게 됩니다.

더우기 나쁜 전선을 지나갈 때에는 더욱 심하답니다.

우리는 비단 전선을 통과하면서 동무들을 잃어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변압기를 통과하여 전압을 낮추면서 실지 일할 장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우리는 자신의 전압을 낮추는 일을 하면서 자연 많은 동무들을 또 잃어 버리게 됩니다. 변압기가 없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과 주택들에서 너무 높은 전압을 사용하면 위험해서 쓸 수가 없고 쓴다 하더라도 안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압기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변압기를 덜 사용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우리들의 손실을 적게 하겠는가를 연구하며 주의를 돌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종종 우리 동무들이 전압이 낮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령 가정에서 쓰는 전등을 례를 들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220 볼트 전압에서 사용할 전구를 110 볼트 전압에 사용한다면 같은 전력으로서도 어두워서 일을 못할 지경일겁니다.

이와 같이 규정된 전압 보다 낮을 때에는 자연 우리들의 일할 힘도 약해지고 때로는 전동기나 기타 기계들을 돌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공연히 전압을 낮추느라고 변압기를 더 사용하며 우리를 손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계를 돌리는데도 전압이 낮으면 더 많은 전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은 또한 꼭 같은 시간에 같은 전선 줄을 더 많은 우리들이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은 여기서 숫한 동무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무들은 너무나 안타까워 아우성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발전소로부터 자기 초소로 가는 도중에 손실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전압의 단계를 한 계단씩 높여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것은 전압이 높으면 높을 수록 우리 동무들을 적게 잃게 된답니다.

례를 들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110 볼트용 전등을 220 볼트 전등으로, 140 키로 볼트를 220 키로 볼트로, 3 키로 볼트에서 6~10 키로 볼트로 각각 전압을 한 계단씩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국에서 우리 동무들의 도중 손실을 1%만 감소시켜 주면 1년 동안에 우리들은 약 2만 6천 톤의 카바이트를 더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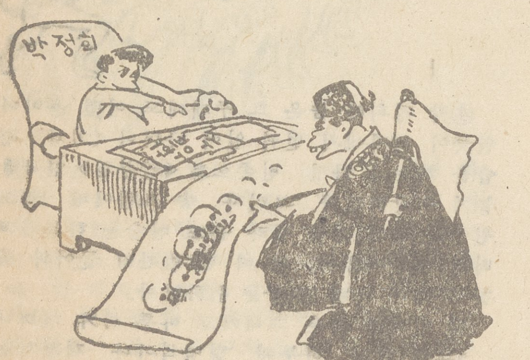
우리들이 가슴 아파하는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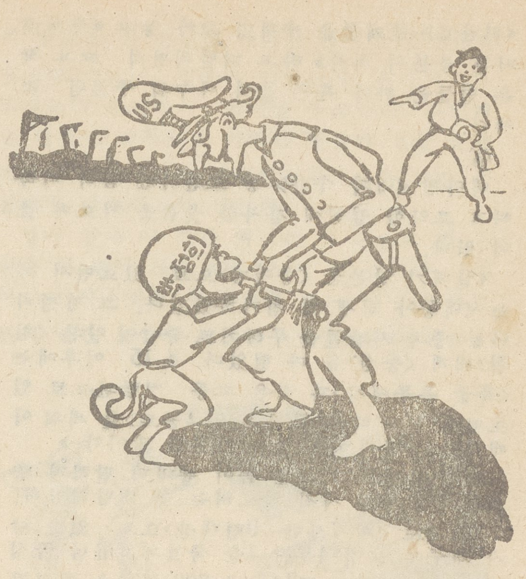
우리가 여러 공장과 기업소를 찾아 갔을 때 전동기나 기대들을 그냥 공회전 시킵니다. 그러니 우리야 전동기를 헛돌리고 있는 셈이지요. 전동기 한 두대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리 큰 일은 아니겠지만 만약 전국에 수십 만 개의 전기 기계들에서 이와 같은 손실을 준다

넘게 해치웁니다. 그저 무더기로 재판합니다. 각하.》

그러니 한 명의 《법관》이 하루 24 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재판한다고 해도 1건을 재판하는데 불과 2분 24초 밖에 안 걸리는 셈이다. 만일 그놈이 밥도 처먹고 잠도 자고 다른 사건 처리까지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분》이 아니라 《초》로 재판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박 정희란 놈은 마음에 안드는듯 하였다.

《하루에 600명 밖에 재판 못하구서야 무슨 <한국 법관> 이라고 하겠는가? 쉴새 없이 죽이고 쉴 새 없이 감옥에 처 넣으란 말이야.》





⑤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그 놈에게 사람 죽이는 어떤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었다. 놈은 살인귀 답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줄줄 엮어댔다.

《계엄 사령부》《군, 경, 검 합동 수사부》《중앙 정보국》등과 지어는 《소년 교통 경찰대》까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공법》《특수 범죄 처벌 특수법》《폭력 행위 처벌법》나종에는 《산아 제한법》까지 그 어느 것이나 몸서리치는 악법이 계속 나오는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지어는 옛상전인 일제까지 끌여 들이려는 《한일 회담》까지 떠벌였다. 그래도 그 놈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각하께서 받은임무에 충실하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⑥ 박 정희가 다시 앉았을 때 한 놈이 뛰여들어 왔다.

《무슨 일인가?》

그는 위엄있게 물었다.

《네 다름이 아니라 <민족 청년단> 계통의 고급 장교놈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하였습니다.》

《뭣이? 어째! 모조리 잡아 죽였!》하고 박 정희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광을 부렸다.

최근 지배 계층 내부에서만도 군사《정권》의 전복을 기도하는 사건들이 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내가 미제와 인간 백정인 네놈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불만과 항거의 기세가 날로 높아져 가는 수 많은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자 인간백정 박 정희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되였으며 흡사 해골과도 같이 보이였다.

그렇다. 남조선 인민은 미제 상전놈의 등만 믿고 천하무인격으로 날뛰는 흉악 무도한 인간 백정이며 매국노인 이놈들을 멀지 않은 앞날에 반드시 처단하고야 말 것이다.



면 그량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전국에서 금년에 우리들이 소비되는 량을 1%만 절약한다면 그것으로 직물을 무려 5 억 메터나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동기를 돌리는 우리들의 힘은 아주 큰데 거기에다 보잘 것 없는 짐을 실어주고도 태연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벼'단 하나를 자동차에 실어 나르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답니다. 공장과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 하지 못해서 우리를 많이 쓸 때에는 단꺼번에 많이 쓰다가는 다음엔 전혀 쓰지 않군 합니다.

이 때 우리들은 자연 같은 시간에 많은 동무들이 전선을 타고 가야 하며 그러자면 또한 도중에 손실을 많이 보게 된답니다.

그러기에 생산을 정상화 하면서 우리들을 계속적이며 평균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 줄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다음의 수'자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를 소비할 총량 중 1%만 절약하여 주신다면 그것으로 강철은 10만 톤, 카바이트는 2만 7천 톤, 석탄은 7백 36만 3천 톤, 신문지는 270만 톤을 각각 생산할 수 있답니다.

내가 어떤 가정을 찾아 갔을 때 대낮에 전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집 주인은 그까짓 전등 하나쯤 켜두어서 무슨 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 한다면 얼마나 많은 랑비가 있겠습니까.

평양시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때일 한 시간 씩만 우리들을 절약하여 준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써 9만 메터의 천을 짤 힘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어느 가정에 가 보면 촉수가 아주 높은 전등을 켜는데 이것은 우리를 랑비할 뿐만 안니라 사람의 시력에도 해로운 것입니다. 또 어떤 집에서는 전등에 갓을 씌우지 않고 촉수가 높은 전구만 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자동차 헤트라이트는 대단히 밝지만 가정에서 쓰는 전구 촉수의 불과 7분지 1밖에 되지 않는 6 왓트의 전구가 들어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것은 좋은 갓이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을 더 많이 절약하여 주실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김 춘실



달리는 렬차에서

고원 역을 떠난 렬차는 정시로 달리고 있었다.

32 려객 렬차의 승무를 끝낸 원산 청년 검차구 검차원 리 일순 동무는 고원 역에서 5,214 렬차(화물차)에 변승하여 본구로 돌아 오고 있었다.

혼곤히 잠들었던 리 일순 동무는 차장의 다급한 소리에 후닥닥 정신을 차렸다.

그는 다급히 밖을 내다 보았다.

새'하얀 석회 가루가 흩날리고 있지 않는가.

아마도 렬차의 진동으로 해서 측문이 벌어진 모양이였다.

(다음 역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한다. 그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석회가 날아 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 일순 동무는 차장실 문을 열고 짐을 만재한 앞차에 뛰여 올랐다.

《위험하오. 내려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차장의 목 소리를 뒤에 들으며 일순 동무는 한 바곤 또 한 바곤을 뛰여 넘었다.

련달려 있는 유개차 우로 지날 때에는 배밀이로 전진 해야만 했다. 그것을 지나자 이번엔 원목을 만재한 차 바곤이 나타났다. 그는 원목 우에 가까스로 기여 올랐다. 차가 진동하는 바람에 원목 사이에 발이 끼웠다.

일순 동무는 안'간 힘을 다하여 발을 빼여 내였다. 발이 몹시 아파났다. (그렇다고 어찌 지금 막대하게 류실 되는 국가 재산을 보고 주저 앉을 수 있으랴! 안 된다. 그것은 민청원의 량심이 허락 하지 않는다.)

그는 다시 다음 화차로 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는 유개차와 무개차를 13 차량이나 지나서야 간신히 석회를 실은 차량에 당도 할 수 있었다.

그는 아래 측문이 벌어진 곳을 찾아 내였다. 측문 고리를 채워보려 애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자 일순 동무는 작업복을 벗어 얼굴을 싸맨 다음 측문이 버러져 석회가 흘러 내리는 곳을 자기의 육신으로 막았다.

내려 누르는 석회의 압력으로 몸이 측문 밖으로 밀리여 나가려 할 때마다 그는 측문 고리를 꽉 틀어 쥐고 참아 냈다.

렬차는 정시로 구내에 들어섰다.

동무들이 그를 석회차에서 구해 냈을 때 그는 히죽이 웃었다.

원산 청년 검차구 지 신갑

청년 오락실

글 자 찾 기

아래의 천리마 동상에서 19 개의 글'자를 찾아 내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보라!

제출자, 조선 인민군 우편함
제 96193 (타) 리 기철



(현)(상) (문)(제)

어느 일요일 철수네 작업반원들은 대성산에 놀러갔다. 그들은 대성산 호수에 대하여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철수는 무엇이 생각났는지 고요한 물속에 조약돌을 던지며 말하였다. «자 동무들, 저 아름다운 파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오?»

작업 반원들은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철수를 찬찬히 쳐다 보았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고요한 물속에 돌을 던지면 그렇듯 정확한 원형의 파문이 생기며 전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소?

그런데 만일 흐르는 물에다 돌을 던지면 저렇게 정확한 파문이 퍼 질가요?»

작업 반원들은 철수의 질문에 인차 대답을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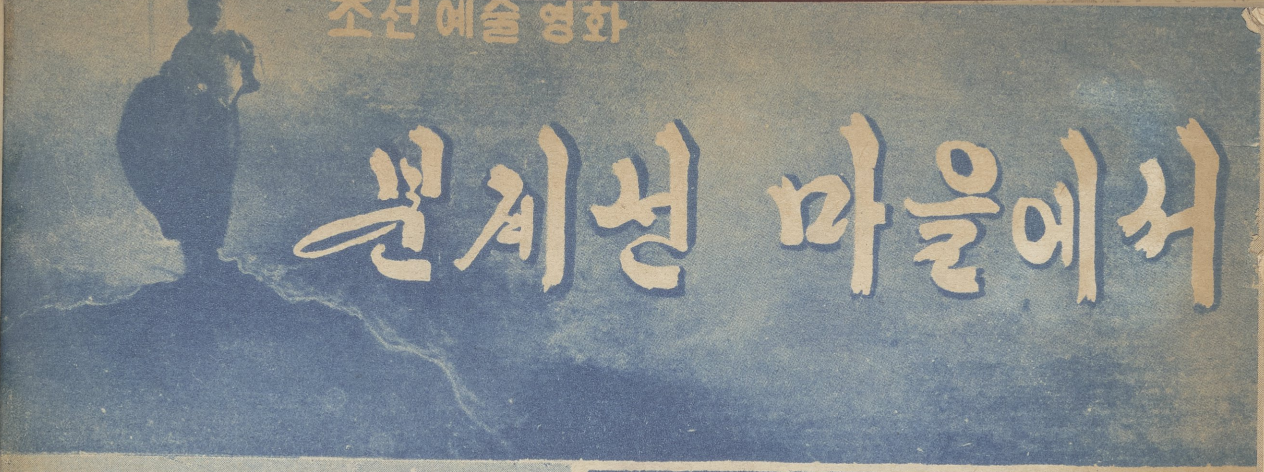
독자들이여! 과연 급류 속에 던진 돌에 의하여 생기는 파문도 역시 원형이 될가? 그렇지 않으면 이즈러진 타원형을 이루겠는가?

«청년 생활»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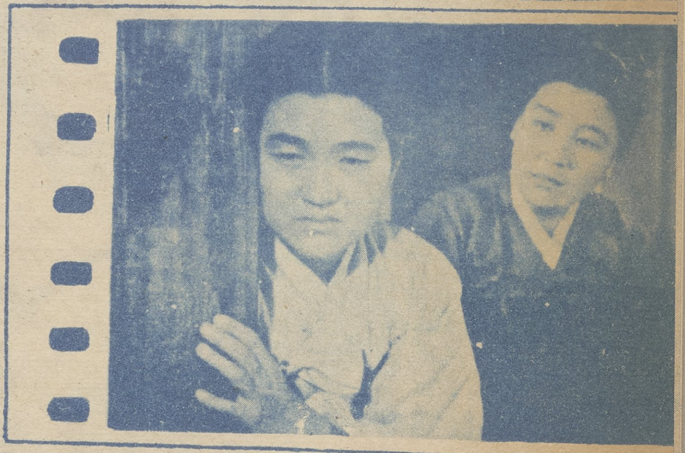
발행소 민청 출판사　　주소 평양시 동대원 구역 문신동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전화 (2—38—58, 2—83—85)
1962년 1월 15일 인쇄　1962년 1월 20일 발행
«값 30 전»　　ㄱ—230038

조선 예술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



씨나리오 ………… 리 지용
연 출 (공훈배우) 박 학
촬 영 ………… 오 웅탁







분계선—저주와 원한에 찬 이 분계선을 우리 조국 강토에서 하루 속히 없애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미제 침략군을 남녘 땅에서 몰아내자.

조선 예술 영화 «분계선 마을에서»는 미제에 의하여 분렬되여 있는 조국을 통일할 데 대한 우리 인민의 한결 같은 념원과 우리 당 군중 로선의 승리를 구가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영화 예술 발전에서의 걸출한 작품이다.


62